

2026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세부유형	순수학문연구형 - ① 논문/저역서					
신청기관	대학(기관)	전남대학교		소재지	광주광역시	
	연구소	연구소명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소장	이원석	설립일자	2001.09.01.	
		홈페이지	https://sophia.jnu.ac.kr/sophia/index.do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지원이력	(지원기간) 2019.09.01.~2025.08.31. / (총지원액) 1,981백만원 (사업유형) 순수학문연구형 (연구과제명) 근대호남유학 연구: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명	국문	20세기 호남유학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문	20th-Century Honam Confucianism and the Reshaping of Locality: Centered on the Jeonnam and Gwangju Regions				
연구책임자	성명	이원석	소속학과	철학과		
연구분야	연구분야1	연구분야2		연구분야3		
	분야	한국유가철학		한국근대철학		
	비율(%)	40		20		
연구규모	연구기간	6년		2026.09.01 ~ 2032.08.31.		
	신청연구비 (정부지원 사업비)	1단계		2단계		
		1차년도	130,000 천원	1차년도	260,000 천원	
		2차년도	260,000 천원	2차년도	260,000 천원	
		3차년도	260,000 천원	3차년도	260,000 천원	
		4차년도	130,000 천원			
	총 연구비 1,560,000 천원					
	참여인력	구분			인원	
		일반공동연구원			3명	
		전임연구인력			3명	
합계			6명			
※ 전임연구인력 : 총 (3)명 중 현재 (3)명 채용						
본인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 관련 법령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응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작성자		연구책임자		이 원 석 (인)		
교육부 장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 연구 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자 이내)

○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간 유학의 이론적·실천적 변동상을 파악하려는 최초의 시도임.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의 지식 지형도’에 대한 체계적 탐구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 연구의 결과는 호남적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사료적·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임. 20세기 전남·광주의 지식 지형도 분석은 다음 작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

첫째, 유학자 집단의 관계망과 개별 유학자들에 관한 포괄적 연구
둘째, 서원 창설·복설 및 서원지(書院誌) 연구
셋째, 가학(家學) 전통 연구
넷째, 강학(講學) 인물 및 강학 전통 연구
다섯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저술 및 간행

○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음.

- ①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학파와 인물 중심의 지식 계보 복원
- ② 서원지·가학·강학전통의 종합 정리를 통한 현대유학의 실천장 재구성
- ③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유학사의 지역적 서사 정립
- ④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통한 지역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 ⑤ 20세기 한국유학사 공백기의 통합적 서술.

○ **연구 성과**는 논문 60편, 저·역서 3권, 총서 6권, 학술대회 6회임.

○ **연구의 독창성**

① ‘20세기, 전남·광주’라는 시공간 축을 중심으로 지역 유학의 역동적 계승 양상을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 특히 1단계와 2단계 구분을 통해 시대·인물을 분석하고, 지식의 생성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다양한 모습의 계승 양상[서원지, 가학, 강학]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지성의 역사적 연속성과 독자적 내재성을 입증할 것임. 이를 통해 20세기 전남·광주라는 시공간 속에서 ‘지식의 실천장’을 실현해 가는 지역 유학의 역동적 모습을 포착하려 함.

② 전남·광주의 지역 유학이 가지는 맥락적 고유성과 지역적 토착성, 독자적 내재성 포착을 통해 호남적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지적 접근이라는 점. 이는 지역사·지방사 관점에서 ‘가학’ ‘강학’이라는 교육 실천의 계보를 복원하고, ‘서원지’ 등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남·광주의 지역적 변용과 재구성을 해명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궁극적으로 우리 전통의 일부분

인 유학적 사유의 현대적 가치 재구성이라는 공공적 기획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적임.

○ 연구의 필요성은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전남·광주 유학의 대응 양상을 규명하고, 지역학적 전통과 학술 관계망을 복원함으로써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서술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임.

첫째,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전남·광주 지역 유학의 현실 대응 양상 규명
개화, 식민지, 분단과 같은 격변기를 겪으면서 유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과 ‘수용’ 양상을 반복해 옴. 본 연구는 20세기라는 정치·사회·문화적 혼란 속에서 전남·광주의 유학적 선택과 그 철학적·실천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현대유학의 대응 양상을 규명함.

둘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역학적 전통과 학술 관계망에 대한 체계적 조사 부재 보완

전남·광주 유학은 조선 후기 노사학파의 강한 영향력과 20세기 들어 형성된 간재학과 및 화서학과 계열의 문인집단을 낳으면서 고유한 지식 전통과 학술 관계망을 형성해 옴.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고유성과 현대적 적응 양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부재와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임.

셋째, ‘20세기 호남유학사’의 서술을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

본 연구는 최초의 ‘20세기 호남유학사’의 골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임. 특히 시대별 인물 구분, 서원지 및 문헌 분석, 가학·강학의 교육 전통 등을 연계해 ‘지속성과 변용’이라는 이중 시선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유학사 전개에 있어 지역성과 시대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함.

넷째, 한국유학사 공백기 복원

20세기,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유학의 역사는 ‘단절’ 혹은 ‘쇠퇴’로만 기술되어 옴. 20세기에 나타난 한국철학사를 통시적으로 다루는 저술들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에서 서술을 멈춘 것이 사실임. 본 연구는 유학사의 연속성을 입증하고, 그러한 지적 활동의 공백기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임.

다섯째,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인 ‘호남 정신’의 실체적 기반 마련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유학은 여전히 교육, 윤리, 지역, 문화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세기 유학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인 ‘호남 정신’의 실체적 기반을 마련할 것임. 아울러 소멸해

	가는 종가 및 지역 서원 문화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유학의 공공적 재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기대효과 (한글 200자 이내)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집단연구임. 지역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홍보 차원에서 20세기 호남유학의 유·무형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남 유교 문화권’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유교문화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관광 자원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들은 정책적·사회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유도할 것임. □ 정책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에 나타난 유학자 집단의 현황을 명료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들을 유지, 개수, 보존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음. 그 사례를 들면, 간-지역적인 규모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포함하는 노사학파의 유물·유적에 대한 전통유교문화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또한 전남·광주의 노사학파와 전북의 간재학파 사이에 존재했던 학술적 대립과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들을 배경으로 호남유학만의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은 경상도 지역의 한주학파, 전라북도 일원의 간재학파, 충청 일원의 연재학파, 나아가 경기권 일원의 화서학파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역사성을 보존해 옴.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학술·문화·역사·정치적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지역감정과 같은 낡은 사회적 장벽들의 허구성을 벗겨내고 더 큰 사상적 문화적 동질성 속에서 작동하는 유학적 전통문화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활용해서 좁은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사회통합적 기능과 지역적 독자성의 담론을 개발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차별성을 가진 지역학의 서사를 개발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가 정리되면, 이 시기에 창설 및 복설된 서원의 소재지 행정주체들은 본 연구의 성과를 학술, 문화, 사회, 관광 등의 영역에 연계시켜 전남·광주를 하나로 묶는 ‘호남 유교 문화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 및 인문 콘텐츠의 광역화를 실현할 수 있음.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이라는 범주 아래 구성될 수 있는 문화자원들의 스토리텔링화, 혹은 관광자원화에 대한 요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임.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제안과 같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 즉, 20세기를 특징짓는 지적 사조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혹은 이들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가 부재했기 때문.
연구요약 (한글 200자 이내)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인물 연구에서 출발해서 ‘지식 지형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원지, 가학 전통, 강학 전통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유학의 구조적·맥락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지향함.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지형도를 파악하고, 이를 호남유학사의 서술로 수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임. ① 미발굴 인물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자군에 대한 개별 연구 ② 20세기 간행된 서원지의 간행 경위와 내용 등을 통한 20세기 유학 전통 복원 양상 연구 ③ 국학의 지위를 상실한 20세기 유학의 대응 양상으로서 가학 전통에서 나타난 유학자군에 관한 연구 ④ 서구화한 교육 제도의 변천을 마주하고 유학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나타난 강학 전통과 관련된 인물과 공간, 집단에 관한 연구 ⑤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 7차년의 연구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시대와 인물’ 연구, 2단계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지형도와 호남적 로컬리티 탐색’을 연구목표로 설정, 단계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차별 연구를 수행함. 7차년 전체의 탐구 범위와 연구 목표 및 연차별 소주제는 다음과 같음. □ 제1단계 시대와 인물: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계보 복원 1차년 근대 전환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저항과 수용 2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1: 1950년까지 3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2: 1951년 이후 □ 제2단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지식 지형도와 호남적 로컬리티 탐색 4차년 문헌 연구 : 20세기 간행 서원지(書院誌)를 중심으로 5차년 가학(家學) 전통 연구 6차년 강학(講學) 전통 연구 7차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 연구 성과물은 논문 60편, 저·역서 3권, 총서 6권,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 6회 등 네 유형으로 산출될 것임. 논문은 연차별 연구주제에 따른 목표에 따라 저술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전문학회지 게재를 통해 발표됨. 노사학과, 간재학과, 화서학과와 연재학과를 넘나드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자들의 사유와 사회적 활동상은 정해진 주제에 따라 저·역서와 총서의 형태로 출판될 예정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그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라는 단행본으로 귀결될 것임.
키워드 (Keyword/한글)	20세기, 전남·광주, 호남유학, 로컬리티, 서원지, 가학전통, 강학전통.
키워드 (Keyword/영어)	20th century, Jeonnam-Gwangju, Honam Confucianism, locality, Seowonji(書院誌), Family Scholarly Tradition(家學傳統), Lecture Tradition(講學傳統).

□ 연구기반	1
Ⅰ. 연구소 운영실적	1
1. 연구소 특성화 · 전문화 추진 실적	1
2. 연구소 실적	2
3.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 · 문헌 보유 현황	5
Ⅱ. 연구인력	6
1. 연구인력 구성	6
2. 연구책임자	6
3. 참여연구원 현황	7
Ⅲ. 연구소 발전계획	8
1. 전문화 및 특성화 발전계획	8
2.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10
3. 연구비 수주 계획	10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11
5.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 추진계획	12
Ⅳ.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	14
1.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14
2. 대학(기관)의 인력확충 및 지원계획	15
3. 대학(기관)의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계획	15
□ 연구수행	16
Ⅴ. 연구과제 수행계획	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방법 및 내용	22
3. 학제적 · 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27
4.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	27
5. 연구수행 일정	27
6. 성과목표	29
Ⅵ. 인력양성계획	31
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31
2.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33
Ⅶ. 연구성과 기여도	34
1.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34
2.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파생 가능성	35

☐ 붙임자료

- ~~1. 연구소 연구비 수주 실적~~
- ~~2. 연구소 대표실적~~
- 3. 신청 연구소 정관 또는 운영규정
- 4. 참고문헌

☐ 첨부자료

- 1. 연구소 대표실적 증빙자료집
-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3. 기관장 협약서
- 4.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 5.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 증빙자료
- 6. (국내 연구기관만 해당) 신청요건 확인서

□ 「연구기반」 부문

I 연구소 운영실적

1.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 실적

가. 연구소 연혁 및 목적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설립연도, 설립목적, 사업추진〉

구분	내용
설립연도	2001년 9월 1일(「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제4조」, [별표2])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동·서양 철학사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함. 이를 토대로 학문 상호간의 유기적·통합적 체계를 확립하고, 여타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 철학적 토대의 제공을 모색함. 이들 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나아가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철학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 철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철학화를 실천함으로써 현대사회와 미래의 철학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데에 설립 목적을 둠.
수행사업	○ 동서철학의 전문적·체계적·통합적 연구 ○ 동서철학의 고전 번역 및 주석 작업 ○ 호남유학 문헌 자료 정리 및 번역 사업 ○ 학술대회 개최 및 출판물 발간 ○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수요자 층을 위한 철학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철학특강, 철학아카데미, 철학교실, 철학캠프 운영 ○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철학 협동 강의 개설 ○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사업 ○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관한 사업

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 저·역서 및 총서 발간

구분	권수	책 명
저·역서	7권	『외필논쟁 자료집』 1 (2021) 『노사학과 문집해제』 1 (2021) 『노사학과 문집해제』 2 (2022) 『외필논쟁 자료집』 2 (2022) 『납량사의논쟁 자료집』 (2023) 『노사학과 강학·일기 자료집』 1 (2024)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2025)
총서	6권	『노사 지정진의 철학 사상』 (2021)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직전제자를 중심으로』 1 (2021)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직전제자를 중심으로』 2 (2022)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직전제자를 중심으로』 3 (2023)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문인과 지역을 중심으로』 4 (2024)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문인들과 지역을 중심으로』 5 (2025)

□ 학술 활동

학술 활동명	횟수	활동 내용
국내·국제학술대회	10회	- 2021년부터 연 2회 이상 개최 - 한국동양철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노사학연구원, 한국철학사연구회 등과 함께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문가 초청 강연	12회	- 2021년부터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 전주대, 충남대, 경상대 등에서 국내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현암 이을호 기념강좌	6회	- 2023년부터 현암 이을호를 기념하는 강좌를 개최
학문후속세대 강좌	-	- 2020~22년까지 매 학기 한문 원전 강독 <열린고전강좌> 운영 - 호남유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어』·『맹자』 강독 운영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

□ 인문학 대중화 사업

사업명	운영기간	사업 내용
K-MOOC 강좌 제작	2024~2025	-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문화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유학에 관한 K-MOOC 강좌 제작
월봉서원 강학회	2022~현재	- 광주광역시 지원을 통해 한문 강독 및 인문학 강좌 실시
청소년철학교실	2021~현재	-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문학 교육 네트워크 구축 (총 21개 기관) - 민간단체와 연계한 철학교실 네트워크 (광주민중의 집, 광주성빈여사 등)
유교아카데미 강좌	2021~2022	-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성 고산서원에서 유교아카데미 개최 - 노사 기정진과 그의 제자들, 호남유학에 관하여 강의, YOU TUBE 제공
인문도시지원사업	2020~2021	-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인문학 강좌 실시(16회)

2. 연구소 실적(최근 5년, 2021.1.1. ~ 현재)

가-1. 연구비 수주실적

연구참여 총 인원	수주 구분	연구비 수주실적		비고
		계	평균	
4명	연구소 수주	0 건	0 건	
	개별 수주	13 건 (351,304천원)	3.25 건 (351,304천원)	
	계	13 건 (351,304천원)	3.25 건 (351,304천원)	

가-2. 타 연구소 사업 수행 실적

No.	지원부처명	사업명	연구책임자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비고
1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양순자	2019.09.01.	2025.08.31.	
2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	박구용	2020.07.01.	2023.06.30.	

나-1. 논문 및 저역서 실적(총괄)

연구참여 총 인원*	논문		저·역서	
	SCI급**	KCI급***	단독	공동
4명	전체: 0건 평균: 0건	전체: 51건 평균: 12.75건	전체: 9건 평균: 2.25건	전체: 24건 평균: 6건

나-2. 논문 및 저역서 실적(세부)

구분	성명	논문		저·역서	
		SCI급*	KCI급**	단독	공동
연구책임자	이원석	0건	12건	2건	2건
일반공동 연구원	김경호	0건	10건	2건	6건
	이향준	0건	17건	2건	10건
	조지형	0건	12건	3건	6건
계	4명	0건	51건	9건	24건

다. 학술대회 개최 실적(총 11회)

□ 국제 학술대회(1회)

No.	학술대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발표자 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한국동양철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25.01.10.	서울대 국제회의실	4	4	8

□ 국내 학술대회(10회)

No.	학술대회명	개최일	개최장소	내용
1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1.04.30.	온라인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직전 제자를 중심으로
2	2021년 광산 역사인물 송천·금호 학술대회	21.11.12.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광산의 절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
3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2.02.05.	온라인	노사학과의 학문과 사상: 직전·재전 제자를 중심으로
4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 기념행사	22.11.24.	김대중 컨벤션센터	고봉, 시대를 비추다
5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3.02.20.	제주대 문화원형체험관	근·현대 제주유학과 노사학과
6	한국주자학회 2023년도 제1차 정기학술회의	23.04.28.	양산서원	한국 성리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7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3.12.01.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근·현대 호남유학의 초상: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8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4.02.02.	전남대 이을호강의실	원전어로 읽는 요가와 명상 그리고 수양: 지역과 전통을 넘어
9	한국동양철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24.05.18.	전남대 이을호강의실	근·현대 한국유학의 성과와 과제
10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정기학술대회	25.04.25.	전남대 이을호강의실	근·현대 한국 경학: 한말 4대 성리학파를 중심으로

라. 정기간행물/단행본 발간 실적(13권)

No.	책 명	발간 부수	발간 연월
1	『노사 기정진의 철학 사상』	300부	21.06.
2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1	〃	〃
3	『외필논쟁 자료집』 1	〃	〃
4	『노사학과 문집해제』 1	〃	21.08.
5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2	〃	22.06.
6	『외필논쟁 자료집』 2	〃	〃
7	『노사학과 문집해제』 2	〃	〃
8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3	〃	23.06.
9	『납량사의논쟁 자료집』	〃	〃
10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4	〃	24.06.
11	『노사학과 강학·일기 자료집』 1	〃	〃
12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노사학과를 중심으로』	〃	25.07.
13	『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5	〃	25.08.

마. 전문가초청세미나·기념강좌 및 MOU 체결 실적

□ 전문가초청세미나(총 12건)

No.	내 용	전문가 (소속)	초청연월
1	영남지역의 국학연구 경향	이상호(한국국학진흥원책임연구원)	21.02.
2	제주지역의 노사학과 및 화서학과를 비롯한 근대유학 전통	김새미오(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1.02.
3	호남유학의 흐름과 특징	고영진(광주대 관광학과)	21.03.
4	1919년이라는 문턱과 파리장서운동	서동일(국가보훈처)	22.03.
5	조선후기 유학사상사 읽기: 관점, 토픽, 키워드	노관범(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2.03.
6	19세기 사상사의 지도	임형택(성균관대 한문학과)	23.01.
7	제주 유학지식인의 삶과 저작	오문복(제주지역 한학자)	23.02.
8	노사 기정진의 산문 4칙	심경호(고려대 한문학과)	23.04.
9	충청유학의 흐름과 사상사적 의의	황의동(충남대 철학과)	23.12.
10	조선 말기 심설논쟁의 성격과 의의	이상익(부산대 윤리학과)	24.01.
11	한국 유학의 근대적 기원	양일모(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4.01.
12	조선 후기 학술 동향과 19세기의 동향	최석기(경상국립대 한문학과)	25.01.

□ <현암 이을호> 기념강좌(총 6건)

No.	내 용	전문가 (소속)	초청연월
1	현암 이을호의 삶과 학문	오종일(전주대 한문학과)	23.10.
2	현암 이을호의 사상의학 연구	최대우(전남대 철학과)	23.11.
3	한국 현대철학의 두 선택지: 동도서기와 민주화의 절박성	정대현(이화여대 철학과)	24.05.
4	빨치산의 철학자 박치우의 철학과 사상	위상복(전남대 철학과)	24.11.

5	藥人, 이을호(玄庵, 李乙浩): 철학자의 약제사 활동	이영남(충북대 명예교수)	25.05.
6	한국학 속 현암 이을호의 한국철학	다오 부부 박사(베트남사회과학 한림원, 철학원 연구원)	25.11.

□ MOU 체결 실적(총 8건)

No.	체결 기관명	체결연월	No.	체결 기관명	체결연월
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원	20.02.	5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02.
2	한국학호남진흥원	21.07.	6	제주학연구센터	23.02.
3	순창군청	21.10.	7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3.12.
4	고창문화원	22.10.	8	성균관대 한국철학문화연구소	24.04.

바. 최근 5년간 연구소 대표실적(총 5편)

□ 논문/저서 실적(4건)

No.	구분 (논문/저서)	논문(저서)명	학술지명 (출판사명)	게재년월 (출판년월)	저자명
1	저서	『노사학과강학·일기자료집』 1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06.	이원석
2	저서	『기대승, 로컬광주를 넘나들다』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5.02.	김경호
3	저서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노사학과를 중심으로』	고반	2025.07.	이향준
4	논문	장흥 척사운음비(斥邪綸音碑) 연구	신학전망	2022.12.	조지형

□ 기타실적(1건)

No.	구분 (강좌)	강좌명	기관	녹화일	강의자
1	K-MOOC	노사학과와 20세기 한국유학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	24.11.15.	이원석

3.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문헌 보유 현황

구분	내용
연구소 위치	철학연구교육센터: 인문대 1호관 320호
연구 장비	복사기 1대, 컴퓨터 3대, 프린터 3대, 디지털 카메라 1대, 스캐너 1대
학술행사장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313호 현공강의실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이을호강의실
세미나실	전남대학교 인문대 2호관 215호 세미나실
문헌 보유	철학과 관련된 동·서양 원전, 역서 1,200여 권 정기간행물: 1,000여 권

II

연구인력

1. 연구인력 구성(총괄)

연구인력				연구보조원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1명	3명	3명	7명	0명	0명	2명	2명

2. 연구책임자

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명	연구소 참여시작일	정년퇴직 연도	퇴직 이후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 계획
이원석	2019.09.01.	2038. 8. 31.	해당사항 없음
	연구소장명	불일치 사유 및 대책	
	이원석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책임자 경력 및 연구소 관련성

1) 연구책임자의 업적

- 연구책임자는 2014년부터 <조선 초기 경학 연구>, <조선 경학의 문화다원론적 연구>(연구책임자: 한림대 엄연석), <근현대한국총서 저술>(연구책임자: 서울대 양일모) 사업 등에 참여. 2022년부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에 합류, 근대호남유학 저·역서 시리즈 중 『노사학과 강학(講學)·일기(日記) 자료집 1』 간행. 2014년부터 한국유학 논문 17편 발표.
- 연구책임자의 번역서 『인학본체론』(저자 천라이)은 2022년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 연구책임자의 번역서 『주희의 역사세계』(저자 위잉스)는 2015년에 『조선일보』의 역자 인터뷰를 비롯하여 주요 일간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송대 도학 및 조선 유학에 대한 정치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함.
-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송대 인성론 연구」는 2011년에 민음인문학기금-서울대 인문대학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여 그 학문적 수월성 입증.
-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전남대의 RISE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철학교실>, <광주시민을 위한 철학아카데미> 운영.

2) 행정·학문적 능력 및 경력

- (학교 행정 경력) 철학과 학과장('25.03.~'26.02.)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사 주간('25.03.~현재)을 역임, 2025년 인문사회융합사업(HUSS)의 실무책임자로 참여하여 사업수행 경험 축적.
- (학회 행정 경력) 한국동양철학회('23.03.~'25.08), 범한철학회('23.07.~'24.06.) 총무 이사로 재직하며, 학회의 안정적 재정 운영 경험 축적.
- (학문적 경력)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사업단('21.05.~'25.04.)과 철학연구교육센터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21.09~'25.08)까지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단> 공동연구원 참여. 연구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저·역서 발간 및 학술대회 운영 등 학문적 역량 입증.

3) 연구소 관련성 및 운영계획

□ 연구소 관련성

- 연구책임자는 2022년부터 철학연구교육센터의 <근대호남유학연구단> 공동연구원 수행.
- 2025.05월부터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장 역임.

□ 운영계획

- **(단기 계획)** 지역의 미발굴 유학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 및 전자문서화하여 호남유학의 자율성을 규명하고 전통과 현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중기 계획)** 타 지역의 학파들과 횡단연구를 구축함으로써 학파 간의 상호 교류와 근현대의 호남유학의 학문적 영향력 고찰.
- **(장기 계획)** 호남유학의 개화사상과 실학사상과의 학술적 연속성을 탐색, 연구 범위 확장.

3. 참여연구원 현황

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소 참여시작일	연구소 관련 주요 연구경력
성명	직위	전공		
이원석	부교수	중국철학	2019.09.01.	근대호남유학연구단 공동연구원 수행

나. 일반공동연구원(연구소 소속 대학교원 또는 박사급 연구원)

연구자			연구소 참여시작일	연구소 관련 주요 연구경력
성명	직위	전공		
김경호	교수	한국철학	2026.04.01.	호남문화 및 지역학 관련 연구 수행
이향준	연구원	한국철학	2025.06.01	근대호남유학연구단 학술연구교수직 수행
조지형	교수	고전문학	2026.04.01.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고전문학 연구 수행

다. 전임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 전일제 연구원)

연구자			연구소 참여시작일	연구소 관련 주요 연구경력
성명	직위	전공		
서영이	전임연구원	한국철학	2021.09.01.	한국철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며, 근대호남유학연구단 학술연구교수직 수행
정상엽	전임연구원	한국철학	2026.04.01.	한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지역학 연구
조우진	전임연구원	중국철학	2019.09.01.	주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근대호남유학연구단에 소속되어 지역학 연구

III

연구소 발전계획

1. 전문화 및 특성화 발전계획

가.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

단계 주제	차년	주요목표	연구내용
<1단계> 시대와 인물: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계보 복원	1	근대 전환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1831~1860년 출생, 1910년 전후까지 활동했던 유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양상 연구
	2	20세기 인물 연구 1: 1950년까지	1861~1890년 출생, 1911~1950까지 활동했던 유학자 연구
	3	20세기 인물 연구 2: 1951년 이후	1891년 이후 출생, 1951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유학자 연구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간행
<2단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지형도 구축과 호남적 로컬리티 탐색	4	문헌 연구: 서원지(書院誌) 연구	20세기 간행 서원지 연구
	5	가학(家學) 전통 연구	2인 이상의 유학적 전통을 가진 가계 연구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간행
	6	강학(講學) 전통 연구	강학 공간과 강학 집단 연구
	7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연구 및 저술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간행
연구종료 이후	7년 이후	지역별 연구의 세분화	지역별 유학자 집단 발굴, 근현대문화자원으로 활용, 호남유학사 정립

□ 1단계 추진계획

- 본 연구소는 20세기, 1950년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유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활동상 연구. 일제 식민지 시기를 전후한 전남·광주 유학계의 복합적 대응 양상 연구 및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개별 유학자들의 활동상 추적.
- 1단계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저술 계획. 1911년부터 2000년까지 전남·광주 지역에서 유학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인물 발굴 및 연구.
- 1단계의 성과물을 2단계 세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 중심의 지역거점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반 확충.

□ 2단계 추진계획

- 본 연구소는 20세기에 창설 및 복설된 서원 가운데 당시에 간행된 서원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 진행. 그 대표적인 성과물로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간행 계획.
- 본 연구소는 유학적 전통이 20세기 인물로 연결되는 가학 전통과 강학 전통을 다층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가학과 강학의 공간 및 인적 관계망 고찰.
- 본 연구소는 6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개인, 학파, 지역, 가학, 강학 전통을 분류,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간의 유학적 전통을 종합적 서술 계획 수립 후 최종결과물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간행 목표.

나. 연구소 중장기 연구목표(7년 이후)

구분	연구목표	
7년 이후 (2032~)	1단계	- 문집 정본화 사업 및 번역 - 학술 데이터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구축

		- 근대 호남유학사 정립 및 20세기 유학사 재구성
	2단계	- 타 지역의 학파들과 횡단연구 구축 - 문인집단의 총체적 연구를 수행 - 새로운 현대적 유학의 모델 창출
	3단계	- 개화사상, 실학사상과의 학술적 연속성 탐색 - 조선후기의 유학사 재구성 - 한국유학사의 새로운 방향 제시
	4단계	- 한국유학사를 기반으로 한국철학사의 모형을 구상 - 동양의 사유체계를 아우르는 철학적 틀을 제공 - 근현대문화자원으로 활용

□ 7년 이후(2032~) 이후 중장기 실행 단계

○ 6년간의 1단계와 2단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32년 이후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1단계 연구목표:** 단기적으로 호남유학의 전반적인 정본화 사업과 지속적인 번역작업 추진. 학술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구축. 여기에는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이 진행하는 간재학파의 인물과 저술들에 대한 학술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연동해서 서비스하는 한편, 이를 인물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장소, 유물·유적 등에 대한 학술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등을 포함. 근대 호남유학사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20세기 유학사를 재구성할 것임.

○ **2단계 연구목표:** 중기적으로 타 지역의 학파들과 횡단연구를 구축함으로써 학파 간의 상호 교류와 근현대의 학문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임. 구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근대유학의 또 다른 유파, 즉 간재학파, 화서학파, 연재학파 등의 문인집단의 총체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을 기초로 근대호남유학사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지성사를 재구성. 중기적으로는 전체적인 20세기의 유학사가 완성되면 20세기 유학을 중심으로 이전의 유학과 현대유학의 의미를 연계하는 새로운 현대적 유학의 모델을 창출할 것임.

○ **3단계 연구목표:** 장기적으로 개화사상과 실학사상과의 학술적 연속성을 탐색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확장.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저항의 다양한 모습 확인. 이를 근간으로 새로운 조선 후기의 유학사 재구성. 전반적인 한국유학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 지향해야 할 대체유학의 길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

○ **4단계 연구목표:** 더 나아가 한국유학사를 기반으로 한국철학사의 모형을 구상하고, 동양의 사유체계를 아우르는 철학적 틀을 제공할 것임. 아울러 근현대문화자원으로도 활용. 근대를 특징짓는 지적 사조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스토리텔링, 혹은 이들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 구축.

2.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내부인적자원 확보

- 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 실시.
- 연구인력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석·박사과정 원전 독해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독해팀 육성.
- 대학생 연구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원으로 활용.
-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학부 인력을 교육지원.

☐ 학술연구용역 수주 및 수행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 참여.
- 타 학파와 학제 간 연구 및 융합형 연구를 통해서 정부 재원 수주.
- 전남·광주 유학과 관련된 향교, 서원, 기타 문종과 소통하여 유학자의 적극적 발굴.

☐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차별을 극복하는 인문학공동체 기반 마련.
- 시민자유대학, 광주향교 유교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남·광주 인문학 관련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철학교실 운영

- 청소년철학교실은 동·서양 철학 및 인문학 고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
- 전남·광주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그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철학교실 운영.

3. 연구비 수주 계획

☐ 인문학 관련 수주 계획

(단위: 천원)

No.	사업명	주관	대상	지원예산	비고
1	전남·광주 지역 유학자와 연관된 지자체 교육 사업	해당 구청 및 군청	시민	50,000	연구단 주관 신청
2	지역문화원과 교류 및 학술대회	지자체 (광주시·나주시·화순군)	연구단	60,000	
3	학술활동 지원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	〃	10,000	
4	저술활동 지원사업	〃	〃	10,000	

5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 및 시민	단기: 7,000 장기: 14,000	센터 주관 신청
6	대학 거점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시민	10,000	
7	광주 교육청 위탁 교육 사업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0,000	
8	전남대·광주 RISE사업	광주광역시	청소년 및 시민	200,00	

- 정부와 연계: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과제를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주할 계획임.
- 지자체와 연계: 전라남도청과 광주시청을 중심으로 구청·군청과 연계해 호남 유학자들을 발굴하는 작업함으로써 연구비를 수주할 계획임.
- 지역의 교육기관 연계: 전남·광주의 중고등학교, 도서관, 다양한 연구소 및 센터 등과 연계하여 연구사업을 수주할 계획임.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 현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No.	협력기관	협력내용	협력기관의 지원내용	산학연협력내용
1	광주시청 전라남도청	시민인문학 강연	인문학강좌 개설	강의수요자 연결
2	한국학호남진흥원	서원아카데미	학술대회와 저서 출판 지원	현물(공간제공)
3	시민자유대학	인문학강의	인문학강좌 개설	〃
4	성균관대학교	빌드 브릿지: 한국철학의 소통과 확산 사업	〃	강의수요자 연결
5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한국3.0(HK3.0)지원사업	〃	〃
6	지역 향교·서원	유교아카데미	〃	현물(공간제공)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장성군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간-지역적인 학파의 성격과 현황을 규명하고, 이를 지자체의 자치 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임.
-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중심으로 경상대 남명학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철학연구소,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 간재학회,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등 8개 연관 학술단체와 공동 혹은 분업해서 근현대호남유학을 탐구하는 광역연구단의 조성을 도모할 것임.
- 시민자유대학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성과를 공유, 확산시킬 것임.

- 청소년철학교실을 중심으로 전남·광주 중고등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문학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 향교를 중심으로 광주향교, 화순향교, 능주향교, 담양향교, 창평향교, 나주향교, 장성향교, 보성향교, 장흥향교, 강진향교, 해남향교, 순천향교, 함평향교, 무안향교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유교 전통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임.
- 서원을 중심으로 필암서원, 고산서원, 월봉서원, 벽진서원, 무양서원, 임계서원, 운암서원, 유애서원, 군자서원, 옥천서원 등과 연계해서 유교문화자원의 활성화와 인문학 담론의 확산에 기여할 것임.

5.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 추진계획

가.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계획

☐ 학술대회 개최 계획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1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27. 02.	전남대 이을호강의실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 저항과 수용, 식민지 시대의 출현까지
2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27. 10.	〃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1 : 1911년에서 1950년까지 활동한 인물
3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28. 10.	〃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1 : 1951년에서 2000년까지 활동한 인물
4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29. 10.	〃	20세기 간행 서원지(書院誌) 연구
5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30. 10.	〃	20세기 가학(家學) 전통 연구
6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정기학술대회	31. 10.	〃	20세기 강학(講學) 전통 연구

- 학술대회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이라는 주제로 매년 1회 개최.
- 학술대회는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의 20세기 학파들과 횡단연구, 근대호남유학사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지성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는 것임.
- 매년 생산되는 10편의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총서로 간행.

☐ 전문가초청강연 개최 계획

No.	명칭	개최날짜	개최장소	초청 학술기관
1	전문가초청강연	27.03~04	전남대 현공세미나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2	〃	28.03~04	〃	한국학호남진흥원
3	〃	29.03~04	〃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4	〃	30.03~04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5	〃	31.03~04	〃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철학연구소
6	〃	32.03~04	〃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 전문가초청강연은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연구와 관련된 학술 기관의 대표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임.
- 관련 학술 기관은 여섯 곳으로, 각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철학연구소, 이 외에도 국내의 20세기 전남·광주 유학과 관련된 연구자 등이 대상으로 포함.

□ 워크숍 개최 계획

구분		목표	비고
워크숍	국내	12건	6년간
	국제	0건	

- 워크숍은 연 2회(하계·동계) 실시 예정.
- 논문, 총서, 저·역서 등 연구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방향성 논의.

나. 기타 학술지 및 총서 발간계획

□ 총서 발간계획

연차	총서명	내용	발간년월
2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1	20세기 지식인의 저항과 수용 양상	27.08.
3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2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1	28.08.
4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3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2	29.08.
5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4	20세기 전남·광주의 서원지(書院誌) 연구	30.08.
6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5	20세기 전남·광주의 가학(家學) 전통 연구	31.08.
7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6	20세기 전남·광주의 강학(講學) 전통 연구	32.08.

- 총서(6권)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권 이상 발간 예정.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1·2, 『20세기 전남·광주의 서원지(書院誌) 연구』, 『20세기 전남·광주의 가학(家學) 전통 연구』, 『20세기 전남·광주의 강학(講學) 전통 연구』 출판 예정.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저·역서 발간계획

연차	저·역서	내용	발간년월
3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전남·광주 지역 20세기 미발굴 유학자 15인을 선정하여 그 생애와 사상 및 활동상을 다루는 저술	28.08.
5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에서 간행된 서원지 16종 중 호남유학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서원지를 선정하여 번역	30.08.
7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6년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를 정립하는 저술	32.08.

○ 저·역서(3권)는 1단계에서 1권 3단계에서 2권을 발간할 예정임.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를 출판할 것임.

IV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

1.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 전남대학교는 철학연구교육센터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구소의 발전과 자생을 위한 대학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

대학의 육성계획	○ 인문사회연구소로서의 전남·광주의 통합과 AI시대 선도 연구소 기능 구현 ○ 대학 내 연구기관으로서의 통합적 역할 부여 및 다양한 지원 강화 ○ 호남근·현대유학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 성장 ○ 국제적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 방안 강구 및 추진
세부 육성계획	개요 및 대학지원
철학연구 관련 교육센터의 기능 구현	○ 인문사회연구소의 행정을 전담하는 정규직 인력 및 재정 지원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소의 계획·규정 및 주요 심의 ○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지속적 홍보 지원 ○ 선정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한 제반 행정적 지원 ○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및 해외 대학원생 등 우수 연구인력 확보 지원 ○ 전임연구인력의 연구공간 확보 및 대학 내 연구활동 서비스 확충
대학 내 연구기관으로서 통합 역할 주도	○ 산학협력단 연구정책팀을 활용하여 대학 내 연구회 구성 및 운영지원 ○ 학술회의와 심포지엄 개최 경비 및 행정지원 ○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사업 수주, 연구펀드 유치를 통해 연구소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호남유학분야 주도 국내외 공동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 성장	○ 직접화된 연구기반 시설의 교내 및 광역권 활용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지원 ○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자·장비·지재권 통합 검색지원 ○ 사회적 경제 관련 협동과정 시설·재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지원
연구책임자	○ 총 연구기간(6년) 내 연구책임자 재직 보장

2. 대학(기관)의 인력확충 및 지원계획

- ☐ 우수 전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
- ☐ 전임연구원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해 총장발령 및 4대보험 가입.
- ☐ 대학 내 도서관 및 연구시설의 활용 보장을 통한 연구 수행 지원.

- ☐ 행정보조인력 지원계획
- ☐ 회계 및 집행 전담 행정 보조인력의 배치.
- ☐ 사업비의 정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회계 및 집행전담.
- ☐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소 관리 및 지원 체제 적극 활용.
- ☐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연구 행정업무 경감.
- ☐ 대학 본부의 연구비관리 전담조직 활용: 연구지원 전담조직으로 연구지원과의 산학협력단이 조직되어 연구지원 전담인력 20명이 다양한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3. 대학(기관)의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계획

가. 대학(기관)의 재정지원 계획

- ☐ 부설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최대 2,000만원) 및 연구소 학술지 발간비 지원(연구소지 100만원, 등재지 300만원 등), 산학협력단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
- ☐ 사업유치를 통해 발생한 간접비를 연구소 자립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재투자함.
- ☐ 대응자금은 선정 후 연구비 중앙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계획.

나. 대학(기관)의 시설 확충계획

- ☐ 연구소 시설내역

구분		현재	추가확보계획	계	비고
연구소 전용공간(A)		31.35㎡	0㎡	31.35㎡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공간(B)	39.26㎡	0㎡	39.26㎡	
	인원	3명	0명	3명	
	평균	13.08㎡	0㎡	13.08㎡	
계(C=A+B)		70.61㎡	0㎡	70.61㎡	

□ 「연구수행」 부문

V 연구과제 수행계획

20세기 호남유학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필요성

- ①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전남·광주 유학의 현실 대응 양상 규명
- ② 지역학적 전통과 학술 관계망에 대한 체계적 조사 부재 보완
- ③ '20세기 호남유학사' 서술을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
- ④ 한국유학사 공백기 복원
- ⑤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인 '호남 정신'의 실체적 기반 마련

연구 목적

- ① 전남·광주 유학자 집단의 관계망과 개별 유학자에 관한 포괄적 연구
- ② 전남·광주 서원(書院) 창설·복설 및 서원지(書院誌) 연구
- ③ 전남·광주 가학(家學) 전통 연구
- ④ 전남·광주 강학(講學) 인물 및 강학 전통 연구
- ⑤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연구 독창성

- ① 지역 유학의 계승 양상을 20세기까지 확장하려는 최초의 시도
- ② 호남적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지적 접근

◎ 실행 계획

□ 제1단계 시대와 인물: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계보 복원

- 1차년 근대 전환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저항과 수용, 식민지 시대의 출현까지
- 2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1: 1950년까지
- 3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2: 1951년 이후

□ 제2단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지식 지형도 구축과 호남적 로컬리티 탐색

- 4차년 문헌 연구: 20세기 간행 서원지(書院誌)를 중심으로
- 5차년 가학(家學) 전통 연구
- 6차년 강학(講學) 전통 연구
- 7차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 연구 성과 및 학술적 기여

□ 연구 성과: 논문 60편, 저·역서 3권, 총서 6권, 학술대회 6회

□ 학술적 기여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학파와 인물 중심의 지식 계보 복원
- 서원지·가학·강학 전통의 종합 정리를 통한 현대유학의 실천장 재구성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을 통한 지역 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 전남·광주의 지역적 서사 정립 및 20세기 한국유학사 공백기의 통합적 서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변용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임. 이는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간 유학의 이론적·실천적 변동상을 파악하려는 최초의 시도임.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의 지식 지형도’에 대한 체계적 탐구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 연구의 결과는 호남적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사료적·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순한 인물이나 문헌에 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서원지(書院誌)를 비롯한, 가학(家學) 전통, 강학(講學) 전통의 흐름에 대한 중층적 접근을 통해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의 유학 전통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지향함.
- 20세기 전남·광주의 지식 지형도 분석은 다음 작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

첫째, 유학자 집단의 관계망과 개별 유학자들에 관한 포괄적 연구

둘째, 서원 창설·복설 및 서원지 연구

셋째, 가학 전통 연구

넷째, 강학 인물 및 강학 전통 연구

다섯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저술 및 간행

- 먼저 지난 100년 사이 전남·광주에서 활동했던 유학자 집단의 관계망과 개별 유학자들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할 것임. 또 20세기의 서원 창설·복설 및 서원지 연구를 통해 유학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재구성을 탐색하고, 국학의 위상을 지녔던 유학이 20세기 들어 전남·광주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변모하고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학 전통을 연구할 것임. 아울러 현대성의 파도 속에서 끈질기게 한문과 유가 경서의 교육을 유지해 왔던 강학 인물, 그리고 그들에 의해 양성된 현대 유학자 집단을 탐구하는 강학 전통을 분석할 것임.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저술 및 간행할 것임.
- 본 연구의 독창성은 ‘20세기, 전남·광주’라는 시공간 축을 중심으로 지역 유학의 역동적 계승 양상을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있음. 특히 1단계와 2단계 구분을 통해 시대·인물을 분석하고, 지식의 생성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다양한 모습의 계승 양상[서원지, 가학, 강학]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유학의 역사적 연속성과 독자적 내재성을 입증할 것임. 이를 통해 20세기 전남·광주라는 시공간 속에 ‘지식의 실천장(場)’을 실현해 가는 지역 유학의 역동적 모습을 포착하려 함. 기존의 연구가 ‘사상’이나 ‘개별 인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20세기라는 급변의 시기를 ‘지식 지형도’라는 중층적 관점에서 지역 유학자 집단의 활동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또 다른 독창성은 전남·광주의 지역 유학이 가지는 맥락적 고유성과 지역적 토

작성, 독자적 내재성 포착을 통해 호남적 로컬리티를 재구성하는 지적 접근이라는 점에 있음. 이는 지역사·지방사 관점에서 ‘가학’ ‘강학’이라는 교육 실천의 계보 분석, ‘서원지’ 등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남·광주의 지역적 변용과 재구성을 해명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음. 궁극적으로 우리 전통의 일부분인 유학적 사유의 현대적 가치 재구성이라는 공공적 기획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적임.

나. 연구 필요성

- 본 연구의 필요성은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전남·광주 유학의 대응 양상을 규명하고,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서술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것임.
- 이는 20세기 지역 유학에 대한 체계적 조사 부재를 보완하고, 한국유학사의 공백기를 복원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사회가 겪었던 역사적 급변상에 전남·광주 지역 유학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변용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 종합,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서술임.
- 본 연구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전남·광주 지역 유학의 현실 대응 양상 규명

개화, 식민지, 분단과 같은 격변기를 겪으면서 유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과 ‘수용’ 양상을 반복해 옴. 유학자들은 수구(守舊), 개화(開化), 의병과 독립운동 등 활동 양상을 달리 하면서 계(契)와 누정(樓亭), 향교와 서원, 가학과 강학이란 방식으로 유학의 정체성을 형성함. 본 연구는 20세기라는 정치·사회·문화적 혼란 속에서 전남·광주의 유학적 선택과 그 철학적·실천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현대유학의 대응 양상을 규명함.

둘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역학적 전통과 학술 관계망에 대한 체계적 조사 부재 보완

전남·광주 유학은 조선 후기 노사학파의 강한 영향력과 20세기 들어 형성된 간재학과 및 화서학과 계열의 문인집단을 낳으면서 고유한 지식 전통과 학술 관계망을 형성해 옴. 기존 연구는 이러한 학파의 집단적 특징과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로 단편적인 측면에서 접근함.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고유성과 현대적 적응 양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부재와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임.

셋째, ‘20세기 호남유학사’의 서술을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

본 연구는 20세기라는 시공간적 틀 안에서 전남·광주 지역 유학자의 활동, 학술 관계망, 지식 생산, 제도적 실천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최초의 ‘20세기 호남유학사’의 골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임. 특히 시대별 인물 구분, 서원지 및 문헌 분석, 가학·강학의 교육 전통 등을 연계해 ‘지속성과 변용’이라는 이중 시선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유학사 전개에 있어 지역성과 시대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제공함.

넷째, 한국유학사 공백기 복원

20세기,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유학의 역사는 ‘단절’ 혹은 ‘쇠퇴’로만 기술되어 옴. 20세기에 나타난 한국철학사를 통시적으로 다루는 저술들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에서 서술을 멈춘 것이 사실임. 부분적인 진전이야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20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학술 탐구는 거의 부재함.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남·광주 유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에 대응하고 있었음. 본 연구는 유학사의 연속성을 입증하고, 그러한 지적 활동의 공백기를 복원하는데 필수적임.

다섯째,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인 ‘호남 정신’의 실체적 기반 마련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유학은 여전히 교육, 윤리, 지역, 문화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세기 유학의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인 ‘호남 정신’의 실체적 기반 마련할 것임. 아울러 소멸해 가는 종가 및 지역 서원 문화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유학의 공공적 재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다. 진행 과정 및 예상 성과

□ 본 연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임.

- **제1단계**에서는 시대와 인물을 다룸. 20세기를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초반(1910년 전후), 그리고 1950년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전남·광주 유학의 주요 인물군을 지역, 활동, 저술 등을 감안해서 탐구하되, 현재의 시점에서 미발굴된 인물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탐구.
- **제2단계**에서는 1단계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첫째, 20세기 창설되거나 복설된 서원을 대상으로 20세기에 간행된 서원지를 통해 무너진 전통의 복원과 유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둘째, 국학의 위상을 상실한 20세기 유학의 계승과 유지가 가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탐구. 셋째, 20세기 새로운 유학 세대를 창출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써 강학의 전통을 세우고 운영했던 공간과 강학자 및 강학 집단에 대한 탐구 진행. 넷째, 이상의 탐구 성과를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수렴.
- 이상의 학술적 역할을 다했을 때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음.

첫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학파와 인물 중심의 지식 계보 복원

둘째, 서원지·가학·강학 전통의 종합 정리를 통한 현대유학의 실천장 재구성

셋째,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유학사의 지역적 서사 정립

넷째,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저술을 통한 지역 유학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

다섯째, 한국유학사 전개에 있어 20세기라는 공백기의 통합적 서술이라는 거시적 성과

라. 선행연구와의 비교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을 전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새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 오랜 기간에 걸쳐 전남·광주 유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선행연구들의 누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 본 연구를 위해 참조할 가치가 있는 성과물과 이를 수행한 기관들의 목록이 존재함. 대략 열한 곳 정도의 기관들이 호남유학이라는 느슨한 범주를 공통의 축으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가운데 본 연구의 학술적 출발점을 이루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와 수행 기관들의 목록을 연대순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全南地域의 樓亭調査研究』 I～VII, 『호남문화연구』 제14집～제20집, 1985～1991.
 - ② 전라남도·목포대 박물관, 『全南의 書院·祠宇』 제1편, 1988.
 - ③ 전라남도·목포대 박물관, 『全南의 書院·祠宇』 제2편, 1989.
 - ④ 광주직할시·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光州圈文集解題』, 1992.
 - ⑤ 손광은 외, 『全南圈文集解題』 1,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 ⑥ 손광은 외, 『全南圈文集解題』 2,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 ⑦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 호남·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2012～2022.
 - ⑧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 국역 『노사집』 vol.1～5, 교감본 원문 『노사집』 vol.1～2, 2015～2017.
 - ⑨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국학종합DB, 2017～현재.
 - ⑩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근대호남유학연구: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2019～2025.
- 위의 목록은 1985년을 기점으로 지난 40년 동안 호남유학의 탐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줌.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 의해 1984년부터 7개년에 걸쳐 수행한 ‘전남 지역 누정조사연구’와 그 결과물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의 「근대호남유학연구: 노사학과를 중심으로」에 이르는 연구의 계보를 통해 전남지역의 누정, 서원, 사우, 그리고 광주권과 전남권에 산재한 문집, 호남지역 유학자 집단의 사회관계망 및 기정진을 비롯한 주요 유학자 문집의 디지털화 및 국역, 노사학과에 대한 집단 연구 등이 상당 부분 이루어짐.
- 각각의 성과들이 거둔 학술적 성과들은 다음 단계의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기능함. 유물·유적에 대해서는 누정조사와 서원 및 사우 연구를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 물론 이들이 20세기라는 특정한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정연구는 유학자들의 활동 공간이 전남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누정제영』¹⁾과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각종 기

1) 광주직할시, 『樓亭題詠』, 1992 참조.

문(記文)과 시문(詩文) 및 저자들에 관한 기록을 풍부하게 제공해서, 20세기의 호남유학을 탐구하기 위해 따라가야 할 문화적 거점들의 계보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서원과 사우 연구 또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에 건립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450여 개에 달하는 서원과 사우를 전수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1편에서는 사액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33개소를 조사 정리했고, 2편에서는 1편에서 제외된 67개소를 조사 정리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이 참조해야 할 주요 유학적 거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보관 및 이들 자료를 이용한 DB화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에서 수행한 호남지역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분석과 시각화 및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국학종합DB가 보여주었음.²⁾
- 동시에 한국고전번역원과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성과는 이 지역 근대유학의 중심이 노사학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 전자는 『노사집』의 국역을 통해서,³⁾ 후자는 노사학과에 대한 집단연구를 통해서 호남유학의 중심적 조류가 어디에 있고, 그 실체의 규모와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생산해 주었음. 특히 후자는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6개년에 걸쳐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역 근대유학의 탐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 5권의 총서와 6권의 저·역서를 생산했음.⁴⁾
- 이상의 선행연구들 이외에서 언급하지 못한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간재학회, 경상대 남명학연구원 등의 선행연구들이 누적되어 있음.
-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서로 연관된 학술 기관들이 근대호남유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영역을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임. 간재학과에 관한 연구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간재학회 및 간재학연구소,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이 연관되어 있음. 노사학과는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남명학 연구소 및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이 연관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기관들이 수행한 선행연구들의 성과가 이제는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유학사적 시각에서 정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음. 노사학과에 관한 연구는 19세기와 20세기의 구분이 모호하고, 간재학과에 관한 연구는 『간재집』의 번역과 정본화 및 간재학회에 개별적인 연구자가 기고하는 논문집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을 뿐, 아직껏 20세기의 간재학과를 다루는 집단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거시적인 유학사적 시각에서 호남유학의 포괄적 양상을 연구하려면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기초로 하되, 이들이 가지는 파편성을 극복하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대적 양상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연구가 필수적임. 본 연구가 지역적으로는 전남·광주를, 시기적으로는 20세기를, 내용적으로는 전남·광주 유학을 탐구 대상으로

2) <https://mcs.jj.ac.kr/mcs/business/intro.jsp> 및 <http://db.hiks.or.kr/> 참조

3) 국역 『노사집』은 박명희, 안동교, 김석태 등에 의해 경인문화사에서 출판되었는데 vol.1은 2015년, vol.2는 2017년, vol.3~5 및 원문 교감본 『노사집』 vol.1~2는 2018년에 간행되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이미 전라남도 담양군의 지원에 의해 이백순과 최한선이 『노사집』 권1~20을 선행 번역한 사례가 있다. 기정진 저, 『국역 노사선생문집』, 이백순·최한선 역, 무진, 2006.

4) 5권의 총서는 각각 『노사기정진의 철학사상』(2021)·『노사학과 문인들의 삶과 사유』 1~4(2021~2024)이다. 저·역서는 각각 『노사학과문집해제』 1·2(2021·2022)·『외필논쟁 자료집』 1·2(2021·2022)·『남량사의논쟁자료집』(2023)·『조사학과 강학·일기 자료집』 1(2024)이다.

로 설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누적된 선행연구들이 함축하는 지적 연속성의 비판적으로 계승을 뜻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추진전략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인물 연구에서 출발해서 ‘지식 지형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원지, 가학 전통, 강학 전통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유학의 구조적·맥락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지향함.
-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체 7차년도 연구 기간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다음, 단계별 연구 목적을 ‘시대와 인물’ 연구와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지형도’로 설정하고, 7차년 각각에 단계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차별 연구 설정함. 7차년 전체의 탐구 범위와 연구 목표 및 연차별 소주제는 다음과 같음.

○ 제1단계 시대와 인물

목표: 유학 전통의 변화 속에서 활동한 인물군을 발굴·조사하고 지식 계보를 복원

1차년 근대 전환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저항과 수용, 식민지 시대의 출현까지

2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1: 1950년까지

3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2: 1951년 이후

○ 제2단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지식 지형도

목표: 유학 전통의 계승 양상[서원지, 가학, 강학]을 분석하고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구조적 실체 정리 및 호남적 로컬리티 탐색

4차년 문헌 연구: 20세기 간행 서원지를 중심으로

5차년 가학 전통 연구

6차년 강학 전통 연구

7차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 연구 성과물은 논문 60편, 저·역서 3권, 총서 6권,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 6회 등 네 유형으로 산출될 것임. 논문은 연차별 연구주제에 따른 목표에 따라 저술되고,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전문학회지 게재를 통해 발표됨. 노사학과, 간재학과, 화서학과와 연재학과를 넘나드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자들의 사유와 사회적 활동상은 정해진 주제에 따라 저·역서와 총서의 형태로 출판될 예정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그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하기 위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라는 단행본으로 귀결될 것임.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본 연구는 1단계 2년 6개월 동안 ‘시대와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20세기에 활동한 전남·광주 유학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미발굴된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유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 3개년의 인물 연구의 범위는 30년을 단위로 삼아 1831~1860년 사이에 출생한 유학자로서 20세기 초엽까지 활동했던 인물군(아래 <표1-1>, <표1-2> 참조), 1861~1890년 사이에 출생한 유학자로서 20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인물군(아래 <표2-1>, <표2-2> 참조), 1891년 출생한 유학자로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했던 인물군(아래 <표3> 참조)으로 설정.

둘째,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인물 연구를 확대하여 서원지, 가학 전통, 강학 전통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적 양상 탐구(아래 <표 4> 참조). 이를 통해 20세기의 근대화와 전반적인 서구화의 사회적 경향 속에서 전남·광주 유학이 어떻게 지역적 고유성과 독자적 내재성을 확보하며 자신의 지식 지형도를 구축했는지를 검토.

셋째, 2단계의 4년째에는 이상의 모든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현재 수준에서 조망할 수 있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역사와 구체적 실체 및 그 고유한 양상이 무엇인지를 종합. 구체적으로 1단계 인물 중심의 개별 연구, 2단계 3년의 서원지, 가학 전통, 강학 전통 중심의 지식 지형도 연구성과를 종합하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를 저술 및 간행. 이 성과물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 유학에 대한 종합적 후속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20세기 호남유학사를 구축하는 핵심 자료로 인용될 수 있음.

〈전남·광주 지역 출생연도별 미발굴 유학자군〉

〈표1-1〉 1831~1845년 출생, 20세기 활동 유학자군		
인명	지역	학맥
趙德浩	순천	노사
許 燮	남원	노사
鄭時林	보성	노사
白永直	장흥	화서
沈晶澤	곡성	
吳繼洙	나주	노사
魏瓏植	장흥	노사
洪祐錫	화순	노사·화서
具文謨	화순	노사·화서
安澤煥	화순	화서
尹滋鉉	화순	화서
鄭義林	화순	노사
安澤煥	화순	화서
〈표1-2〉 1846~1860년 출생, 20세기 활동 유학자군		
인명	지역	학맥
奇宇萬	장성	노사
李敦植	화순	화서
高光洵	담양	화서
魏啓洋	장흥	노사
李泰魯	나주	노사
奇參衍	장성	노사
朴魯述	광주	노사
沈繼澤	곡성	
吳駿善	나주	노사·화서
文達煥	화순	화서
梁相曄	화순	화서
李熙容	광주	노사
奇 宰	장성	노사
安國禎	화순	
李炳壽	나주	노사
趙亨九	강진	
高光善	광주	노사
宋廷默	광주	노사
梁在海	화순	노사·화서
魏啓玟	장흥	연재·화서
鄭仁采	화순	연재
黃 玟	광양/구례	
宋宙勉	화순	화서
李承鶴	담양	노사
趙章燮	곡성	화서
奇宇承	장성	노사
朴奎鎭	화순	화서
林顯周	구례	화서
邊萬基	장성	화서
安成煥	보성	연재
趙鍾惠	순천	연재
具赫謨	화순	연재
金永燦	담양	간재(?)
梁在慶	화순	노사·화서
奇東準	광주	노사
朴魯晁	광주	노사

〈표2-1〉 1861~1875년 출생, 20세기 활동 유학자군		
인명	지역	학맥
安秉宅	제주·광주	노사
高澆杓	영광	
梁會洛	화순	노사
朴承載	무안	화서
安鍾鶴	보성	연재
趙寅錫	곡성	노사
김한익	장성	화서
朴冀鉉	강진	노사
朴琳相	무안	화서
金永根	강진	화서
김한목	장성	노사·화서 교류
李鍾宅	영광	노사
金志學	함평	화서
鄭熙晁	영광	노사
김기상	장성	신목재 문인
文載熙	화순	화서
池應鉉	광주	노사
孔學源	장성	노사
宋柱昇	고흥	연재
姜大一	순창	노사·간재
魏啓龍	장흥	노사·면암·연재
金永淳	고흥	노사
奉洛淳	장성	노사
裴演默	장흥	노사
蔡晃默	부안(전북)	노사
黃炳中	광양	간재
洪圭植	나주(남평)	노사
洪祐鏞	화순	노사·화서
宋柱憲	고흥	화서·간재
宋鴻	화순	연재
安圭容	보성	노사·연재
李光秀	담양	노사
黃澈源	화순	노사
白弘寅	보성	화서
安東植	나주	노사·화서
李孝錫	장흥	노사
孔琪鎭	순창	노사
李承達	영광	노사
〈표2-2〉 1876~1890년 출생, 20세기 활동 유학자군		
인명	지역	학맥
康基準	고창	노사
高光烈	담양	
康熙鎭	영광	노사
金洙嫻	장흥	노사·화서
崔基亮	광주	노사
康錫珍	장흥	화서
鄭 琦	산청-구례	노사
吳用根	장성	노사
裴玄基	화순	노사
白亨璣	장흥	노사
安鍾基	광주	노사

文 炯	화순	노사
金聲基	화순	연재
鄭大睞	곡성	화서
梁會甲	화순	노사
丁大睞	곡성	화서
裴錫冕	화순	노사
尹璟赫	나주(남평)	노사
金澤柄	영광	노사
朴魯烈	광주	노사
金駿植	장성	노사
朴興圭	장성	노사
李演雨	화순	간재
<표3> 1891 이후 출생, 20세기 활동 유학자군		
인명	지역	학맥
韓基高	나주(남평)	노사
朴錫元	나주	노사
奇老善	장성	노사
金載石	나주	

李澤根	영광	노사
呂昌鉉	곡성	노사
蔡奎泰	부안(전북)	노사
姜 璘	순창	노사
金文玉	합천-화순	노사
鄭喆煥	나주	한주
金奎泰	구례	노사
羅甲柱	나주	노사
奇老章	장성	노사
洪錫熹	나주	노사
송효섭	고흥	간재
朴炯鳳	장성	노사
邊時淵	장성	노사·간재·정재
魏啓道	화순-광주	노사
李百純	보성-광주	노사·간재
尹丁鎬	나주-광주	노사
高在益	장성	노사

<20세기 간행 전남·광주 서원지 16종>

<표4>

서원지	간행년도	서원	소재지
『무양서원지(武陽書院誌)』	1934	무양서원(武陽書院)	광주광역시
『미천서원지(眉泉書院誌)』	1939	미천서원(眉泉書院)	전남 나주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1968	고산서원(高山書院)	전남 장성
『무장서원지(畝長書院誌)』	1969	무장서원(畝長書院)	전남 영광
『죽정서원지(竹亭書院誌)』	1971	죽정서원(竹亭書院)	전남 영암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	1975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남 장성
『설재서원지(雪齋書院誌)』	1975	설재서원(雪齋書院)	전남 나주
『영귀서원지(詠歸書院誌)』	1979	영귀서원(詠歸書院)	전남 곡성
『재동서원지(齋洞書院誌)』	1983	재동서원(齋洞書院)	전남 고흥
『경현서원지(景賢書院誌)』	1983	경현서원(景賢書院)	전남 나주
『옥계서원지(玉溪書院誌)』	1993	옥계서원(玉溪書院)	전남 순천
『녹동서원지(鹿洞書院誌)』	1993	녹동서원(鹿洞書院)	전남 영암
『남강서원지(南康書院誌)』	1994	남강서원(南康書院)	전남 강진
『죽수서원지(竹樹書院誌)』	1995	죽수서원(竹樹書院)	전남 화순
『월봉서원지(月峯書院誌)』	2011	월봉서원(月峯書院)	광주광역시
『군자서원지(君子書院誌)』	2013	군자서원(君子書院)	전남 강진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지식 지형도를 파악하고, 이를 20세기 호남유학사의 서술로 수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미발굴 인물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자군에 대한 개별 연구

둘째, 20세기 간행 서원지의 간행 경위 및 내용 등을 통한 20세기 유학 전통 복원 양상 연구

셋째, 국학의 지위를 상실한 20세기 유학의 대응 양상으로서 가학 전통에서 나타난 유학자군에 관한 연구

넷째, 서구화한 교육 제도의 변천을 마주하고 유학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나타난 강학 전통과 관련된 인물과 공간, 집단에 관한 연구

다섯째,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저술 및 간행

□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발적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다음 단계의 체계적이고 심화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위한 학문적 토대 제공.

□ 연차별 수행계획

차년	연구 내용	성과물	비고
1차년	근대 전환기 호남유학의 분투: 1831~1860년 출생 유학자 대상	학술대회: 1회 개최 (5편의 논문 발표)	- 연구기간 6개월 이내 연구 성과 발표 제한 - 학술대회 발표만 가능 - 학술대회를 통해 5편의 논 문을 발표하고 학술지 게 재는 2차년에 수행
2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1: 1861~1890년 출생 유학자 대상	연구논문: 15편 학술대회: 1회 개최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1 간행	- 1차년 미게재 논문 5편과 2차년 목표 논문 10편 합 산한 15편 게재
3차년	20세기 인물 연구 2: 1891년 이후 출생 유학자 대상	연구논문: 10편 학술대회: 1회 개최 저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간행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2 간행	- 3개년 인물연구 성과를 단 행본으로 간행
4차년	20세기 간행 서원지 및 인물 연구	연구논문: 10편 학술대회: 1회 개최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3 간행	- 인물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서원지 연구
5차년	가학 전통 및 인물 연구	연구논문: 10편 학술대회: 1회 개최 역서: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간행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4 간행	- 4차년 연구를 바탕으로 20 세기 서원지 중 대표적인 텍스트를 국역한 번역서 간행
6차년	강학 전통 및 인물 연구	연구논문: 10편 학술대회: 1회 개최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5 간행	- 인물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강학 전통 연구
7차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저술 및 간행	연구논문: 5편 저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간행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6 간행	- 7차년 연구 종합, 저서 간행

3.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해당 사항 없음.

4.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

구분		성명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책임자		이원석	- 연구 전체 진행의 책임 및 인물연구 - 저·역서 총괄 담당
공동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김경호	- 한국철학 전공분야에 맞춘 인물연구 - 서원지 담당
		이향준	- 한국철학 전공분야에 맞춘 인물연구 - 가학 전통 담당
		조지형	- 한문학 전공분야에 맞춘 인물연구 - 강학 전통 담당
	전임연구인력	서영이	- 연구대상 유학자군 확정 및 기초조사와 자료정리 - 서원지 담당 - 저·역서 담당
		정상엽	- 연구대상 유학자군 확정 및 기초조사와 자료정리 - 가학 전통 담당 - 학술대회, 전문가초청 등 행사 담당
		조우진	- 연구대상 유학자군 확정 및 기초조사와 자료정리 - 강학 전통 담당 - 총서 담당

5. 연구수행 일정

- ☐ 본 연구는 전체 6년 연구 기간을 1단계 3차년, 2단계 4차년으로 구분해 총 7차년으로 진행.
- ☐ 구체적인 연차별 연구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음.

과제목표 (1단계 1차년도)	근대 전환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저항과 수용, 식민지 시대의 출현까지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6.09.~26.1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대상 유학자군 확정	전임연구원 3인
26.12.~27.02.	대상 유학자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연구	연구원 전체
27. 02월 중	제1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 1831~1860년 사이에 출생한 전남·광주 지역 유학자로서 1910년대 식민지 시대의 출현까지 활동했던 유학자군에 대한 인물 연구
- 기존 학계에 누적된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현재까지 미발굴 상태에 놓여 있는 주요 인물군을 확정하고, 이들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및 검토
- 연구 개시 1차년도 연구기간은 6개월로서 연구성과의 소논문 발표가 제한된 시기이므로 학술대회 발표문 5편을 작성하고, 실제 학술지 게재는 2차년에 수행
- 2027. 02월 중 학술대회 개최, 선행연구사 정리 및 개별 인물 연구의 성과물 발표.
- 연구대상 인물군은 붙임 4의 [표 1-1] 및 [표 1-2] 참조.

과제목표 (1단계 2차년도)	20세기 인물 연구 1: 1950년까지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7.03.~28.02.	인물 연구 논문 15편 게재	연구원 전체
27. 10월 중	제2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8. 02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1 간행	연구원 전체

- 1831~1860년 사이에 출생한 전남·광주의 유학자 및 1861~1890년 사이에 출생한 유학자로서 1950년대까지 활동했던 유학자군에 대한 인물 연구의 결과물을 15편의 소논문으로 게재.
- 1차년도의 논문 연구는 학술발표문의 형태로 5편을 발표하고, 논문 게재 제한 기간이 지난 2차년에 전문학술지에 게재. 따라서 2차년 논문 연구 목표 10편과 합쳐 결과적으로 2차년에는 15편의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함.
- 2027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제2회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 2028년 2월 중에 기존의 선행연구 업적 및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모은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1 간행.
- 연구 대상 인물군은 붙임 4의 [표 2-1] 및 [표 2-2] 참조.

과제목표 (1단계 3차년도)	20세기 인물 연구 2: 1951년 이후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8.03.~29.02.	인물 연구 논문 10편 게재	연구원 전체
28. 10월 중	제3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29. 02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2 간행	연구원 전체
29. 02월 중	저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간행	연구원 전체

- 1891년 이후에 출생한 전남·광주 유학자로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인물 연구의 결과물을 10편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
- 2028년 10월 중에 개최하는 제3회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 2029년 2월 중에 기존의 선행연구 업적 및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모은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2 간행.
- 2029년 2월 중에 지난 3개년의 인물 연구성과를 종합해서 저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간행.
- 연구대상 인물군은 붙임 4의 [표 3] 참조.

과제목표 (2단계 1차년도)	인물 연구 지속 및 문헌 연구: 20세기 간행 서원지를 중심으로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9.03.~30.02.	20세기 간행 서원지 연구 논문 10편 게재	연구원 전체
29. 10월 중	제4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30. 02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3 간행	연구원 전체

- 연구대상 서원지는 붙임 4의 [표 4] 참조.

과제목표 (2단계 2차년도)	인물 연구 지속 및 가학 전통 연구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30.03.~31.02.	인물 연구 및 가학 전통 유학자 집단 연구 논문 10편 게재	연구원 전체
30. 10월 중	제5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31. 02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4 간행	연구원 전체
31. 02월 중	역서 『국역 (전남·광주) 서원지』 간행	연구원 전체

과제목표 (2단계 3차년도)	인물 연구 지속 및 강학 전통 연구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31.03.~32.02.	인물 연구 및 강학 전통 연구 논문 10편 게재	연구원 전체
31. 10월 중	제6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연구팀 전체
32. 02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5 간행	연구원 전체

과제목표 (2단계 4차년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연구 및 저술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32.03.~32.08.	전남·광주 유학 연구 논문 5편 게재	연구원 전체
32. 08월 중	총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6 간행	연구팀 전체
32. 08월 중	저서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간행	연구원 전체

6. 성과목표

가. 논문 및 저역서

☐ 논문

구분		1단계 목표	주요내용
KCI급	2차년도	15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주요 인물군의 개별 연구
	3차년도	10건	〃

- 인물 연구는 기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미발굴 인물 중심으로 할 것을 권장.
-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게재 제한에 걸린 5편의 연구논문을 포함해서 15편 게재.

☐ 저·역서

구분	1단계 목표	주요내용
3차년도	1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 열전』 간행

나.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구분		1단계 목표	주요내용
국내 학술대회	2차년도	5건	연구소 개최 학술대회 논문발표 3건 외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2건
	3차년도	5건	연구소 개최 학술대회 논문발표 3건 외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2건

다. 학술대회 개최

구분		1단계 목표	주요내용
국내 학술대회	1~2차년도	2건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1-2: 1950년 이전 인물을 중심으로
	3차년도	1건	20세기 전남·광주의 유학자들 3: 1951년 이후 인물을 중심으로

라. 연구총서 발간

구분		1단계 목표	주요내용
총서	1~2차년도	1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1
	3차년도	1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분투』 2

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임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문능력이 요구됨.

- 호남에서 활동했던 학파들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한문에 대한 독해 능력
- 주요 인물군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지적 특징을 개괄할 수 있는 학술적 능력
- 기초자료와 주요 인물군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을 끌어내는 연구 능력
- 유물·유적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현장 능력

□ 본 연구팀의 전임연구원들은 연구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속작업을 위해서라도 앞서 제시된 능력과 학술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 참여하는 보조연구원들은 향후 미래 전임연구원의 후보자로서 이러한 동일한 학술적 능력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체험하고,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연구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임연구원들과 연계해서 양성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과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약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임.

- ①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학술적 능력 신장
- ② 연관된 대학원 강좌 개설 및 강의
- ③ 본 연구와 연관된 분야의 연구와 학위 취득 멘토링
- ④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⑤ 본 연구의 성과와 연관된 강좌 개설 및 진행
- ⑥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모색 및 취업

□ 이러한 내용은 단계별 연차별 구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임.

〈단계 및 연차별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단계 및 연차	양성 및 활용 계획	비고
1단계 (1~3차년)	1. 전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학술적 능력 신장	매주 1회 전임 및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학파별 원전자료 독회 개최(이미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주 1회 원전독회가 실시되고 있음)

	2. 전임연구원의 경우 본 연구와 연관된 대학원 및 학부 강좌의 개설 및 강의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의 동양철학전공자를 위한 강의 개설과 인문대 내에 설립된 고전번역협동과정의 대학원 과목에 호남유학 분야의 과목 개설 운영
	3. 보조연구원의 경우 본 연구와 연관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와 학위 취득 장려	본 연구와 연관된 분야의 학위 취득을 원하는 보조연구원에 대한 전임연구원의 멘토링 참여
2단계 (4~7차년)	4. 연구의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물과 연구업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이 달성한 학술적 수준이 본 연구의 목표 수준을 초과할 경우 간접비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5.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모색 및 취업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한국고전번역원 호남분원 등 본 연구와 연관된 유관기관들과 공동 작업을 모색하고, 추가 연구비를 조달하며, 장기적으로 훈련된 인력의 유관 분야로의 취업을 장려
	6.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강좌 프로그램 실시	광주향교, 장성에 있는 고산서원 및 필암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월봉서원 등 가까운 유교문화 자원과 공간을 이용한 20세기 호남유학 분야 대중 강좌 프로그램을 계획 실천

2.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 본 연구소는 본 사업 이전에도 이미 일련의 호남유학 총서의 발간과 유학 고전의 번역을 통해 지속적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노사학파라는 근대호남유학의 큰 줄기를 따라 연구 작업을 추진해 왔음.
- 교육적 측면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향교, 월봉서원, 고산서원, 무양서원, 소쇄원 등과 함께 유학 분야의 대중적인 강좌를 기획하여 실천해오고 있으며, 매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교내연구비를 비롯한 연구비 수주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음.
- 본 연구소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20세기 호남유학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사이의 지식 지형도에 관한 연구 작업을 추진할 것임. 따라서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계 및 연차별 교육 및 연구 연계 계획〉

단계 및 연차	교육 및 연구 연계 계획	비고
1단계 1~3차년	1. 연 3회 전문가 초청 강연	연 3회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실시(초청 전문가는 호남유학 연구 학술기관 6개 기관 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2. 연 2회 연구팀 전체 워크숍 / 매주 1회 원전 독회팀 운영	연구목표의 달성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연 2회 워크숍 개최. 전임·보조 연구원·관련 전공 대학원생 중심으로 매주 1회 근·현대 호남유학 관련 원전 독회 운영
	3. 연 1회 이상 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팀의 목표인 20세기 호남유학 총서의 바탕이 될 연구성과의 축적과 수준 점진을 위한 정기 학술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
2단계 4~7차년	4. 본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이용한 20세기 호남유학 강좌 개설 및 시행	본 연구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전임 및 보조연구원이 참여하는 20세기 호남유학 강좌를 개설 및 시행
	5. 대학원 과정에 연관 교과목 개설 및 전임연구원들의 강의 실시	전남대 철학과 및 고전번역협동과정 대학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20세기 호남유학 분야의 교과목을 신설하고, 전임연구원들이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 보급
	6. 유관 기관과의 공동 강좌 개최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교류
	7. 본 연구의 성과의 사회적 공유와 소통	장성에 있는 고산서원 및 필암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월봉서원 등 가까운 유교문화 자원과 공간을 이용한 근·현대 유학분야 대중 강좌 프로그램 개설

1.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정책적·사회적·경제적 기여도

- 본 연구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지역 최초의 체계적인 집단연구임
- 본 연구의 성과는 논문 60여 편, 저·역서 3권, 총서 6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됨.
 -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유학자 집단의 실체적 파악
 - 20세기 전남·광주 주요 유학자군의 분포와 그들의 집단적 특징 고찰
 - 서원지·가학·강학 전통을 통해 20세기 전남·광주 주요 유학자군의 입체적 특징 조명
 -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의 독자적 서술
-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바탕으로, 간-지역적 학술공동체의 서사를 발굴·구성하고, 이를 유교문화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관광자원화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기반을 제공함.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정책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지역에 나타난 유학자 집단의 현황을 명료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들을 유지, 개수, 보존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간-지역적인 규모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포함하는 노사학파의 유물·유적에 대한 전통 유교문화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전남·광주의 노사학파와 전북의 간재학파 사이에 존재했던 학술적 대립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양상들을 배경으로 호남유학만의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은 한주·간재·연재·화서학과 등 타 지역 학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발전해 온 학술 전통임.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지역 간 사상적·문화적 연속성을 확인하고, 지역 감정과 같은 사회적 장벽의 허구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함. 나아가 이를 통해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조명하고, 사회통합적 관점과 지역적 독자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학 서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사 정리를 통해 창설·복설된 서원 등의 유교 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이를 통해 각 소재지 행정주체들은 전남·광주를 하나로 묶는 ‘호남 유교 문화권’ 조성이 가능하며, 인문 콘텐츠의 광역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20세기 유학의 지적 사조와 지역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기초 연구가 부재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선행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파생 가능성

□ 본 연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전남·광주 유학에 관한 개별 연구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통해서 20세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남·광주 유학을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연구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첫째,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이라는 탐구 분야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자극할 것임.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에 관한 연구는 주요 인물군과 발굴되지 않은 채로 현존하는 문집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깊이를 더해갈 것임. 또한 본 연구가 제공하는 인물과 텍스트의 목록에 따라 연구의 순서와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낳을 것임.

둘째, 본 연구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전남·광주 유학의 또 다른 유파, 즉 간재학파에 관한 연구와 대조됨으로써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할 것임. 연구자들은 간재학파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를 함께 참조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지나, 현대에 이르는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발달사와 지성사적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임.

셋째, 본 연구의 확장은 결국 한국지성사에서 호남의 20세기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에 대한 해명에 기여할 것임. 비록 본 연구는 전남·광주 유학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만,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호남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본 연구에 자극받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넷째, 무엇보다 20세기 호남유학사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물지형도와 지성사적 의의를 밝히는 연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

- 본 연구는 전남·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830년대 이후에 출생한 유학자들과 대표 문집, 20세기 간행 서원지, 가학 전통, 강학 전통이라는 연구 범위에 제약받고 있지만, 20세기 전남·광주 유학의 이론적 실천적 범위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님.
- 우리의 연구에는 보다 확장된 호남유학에 관한 연구가 암시되어 있고, 나아가 20세기 호남유학 문집류 문헌들의 정본화 및 번역, 그리고 20세기 호남유학에 속하는 일군의 문집류에 대한 DB화 및 전자 서비스 등의 연구들이 함축되어 있음.
- 여기에는 전주대 근현대유학연구단이 이미 진행했던 인적 네트워크 연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호남국학 종합 DB⁵⁾ 등의 선행 사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물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공간과 유물·유적 등에 대한 학술데이터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구축으로 확장하는 것 또한 암시하고 있음.
- 본 연구 또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하나의 연구이지,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보다 넓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늘 남겨져 있음.

5) <http://db.hiks.or.kr/index.do> 참조.

< 붙임-2 >

연구소 대표실적

☐ [서식-1] 논문/저·역서

No.	구분 (논문/저서)	논문(저서)명	게재지 (권/쪽)	ISSN/ ISBN	게재일 (출판일)	저자명 (제1/교신/ 공동)	학술연구지원사업 既往원 성과여부 (지원기간)
1	저서	노사학과 강학·일기 자료집 1	전남대학교출 판문화원	979-11-93 707-49-4	2024.06.	이원석(공동)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2019년~2025년)
2	저서	기대승, 로컬광주를 넘나들다	전남대학교출 판문화원	979-11-93 707-96-8	2025.02.	김경호(제1)	×
3	저서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노사학과를 중심으로	고반	978-89-97 169-68-9	2025.07.	이향준(공동)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 (2019년~2025년)
4	논문	장흥(長興) 척사운음비(斥邪綸音碑) 연구	『신학전망』231 집, 304-336쪽	1229-0297	2022.12.	조지형(제1)	×

대표실적 설명

1. 이원석(역서), 『노사학과 강학·일기 자료집』 1

본 역서는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근대호남유학연구단’에서 간행하는 『근대호남유학 저·역서』 시리즈 중 하나로, 『노사학과 강학(講學)·일기(日記) 자료집 1』에 해당한다. 연구단은 2019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사학과(蘆沙學派)를 대상으로 인물, 행적, 사상, 유물 및 유적 등을 폭넓게 탐구해왔다. 이 자료집은 기정진과 교유했던 신재철(愼在哲)을 비롯하여 직전문인과 재전문인 등 16인이 남긴 강학 기록, 대화 내용, 개인 일기, 그리고 스승을 찾아 나선 여정 등을 담은 18종의 자료를 한데 모아 번역한 것이다.

이 역서는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적 탐구 방식과 함께, 19세기 호남 유학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이 성과물은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성리학적 사유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2. 김정호(저서), 『기대승, 로컬광주를 넘나들다』

본 저서는 고봉 기대승의 교유, 학문, 그리고 정치적 진퇴 등 그의 생애 전반을 광주라는 지역성 위에서 조망한 글이다. 저자는 광주라는 지역성을 중심축에 두고 기대승에 관한 주체들을 담아냄으로써 기대승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저술의 서술은 기대승과 이황의 교유관계, 그리고 두 인물 간의 왕복 서신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다. 이는 기대승에 대한 전형적 논의 방식 중 하나이지만, 저자는 이를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 바탕 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기대승에 관한 논의들과의 차이점이다.

이 저술에서는 한양과 광주를 넘나드는 기대승의 활동, 그리고 그와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을 두고 있던 이황과 기대승의 교류에 대해 광주라고 하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조망하였다. 또한 광주라고 하는 공간 위에서 기대승의 학문적, 정치적 문제의식과 갈등을 재조명했다. 이와 같은 기대승에 대한 서술방식은 지역성, 곧 공간적 바탕을 중심에 둔 인물 연구와 학술적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이향준(저서),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노사학과를 중심으로』

이 책은 호남지역의 근현대유학을 대표하는 노사학과 유물·유적의 현황을 답사, 정리한 자료집으로, 본 센터에서 간행한 「근대호남유학 저·역서」 시리즈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2024년 여름부터 2025년 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경남 산청 일대,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곡성·구례, 전북 고창·임실,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와 촬영을 수행한 다음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노사학과가 남긴 유물·유적의 현황을 직접 답사하고, 그 현황을 기록하고 한 자리에 묶어서 소개하고 있다. 모두 45 항목으로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영리에 소재한 최숙민((崔瑛民, 1837~1905)의 강학공간인 계남정(溪南亭)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양천상동 공동묘지 내에 위치한 혁암(革菴) 김형식(金滢植, 1886~1929) 묘소(墓所)와 그와 연관된 금대(琴臺)까지를 정리했다.

제2부는 지금은 폐허가 된 전북 순창군 소재 무양서원(武陽書院)의 소장 자료 가운데 개인 문집에 해당하는 20종과 무양서원 관련 편액 5종의 실물 사진과 원문 및 번역문을 실고 있다. 무양서원은 1971년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에 건립한 서원이었으나, 2025년 현재는 폐허로 허물어진 곳이다. 서원이 폐허가 되면서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모두 193종 327책에 해당하는 한적 자료를 순창군에 기증했고, 그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유학자들의 개인 문집 20종을 선별해서 사진 자료와 함께 수록했다. 동시에 사료적 측면에서 무양서원 관련 편액 5종을 수록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4. 조지형(논문), 「장흥(長興) 척사윤음비(斥邪綸音碑) 연구」

본 논문은 장흥(長興) 척사윤음비(斥邪綸音碑)의 건립 주체 및 배경, 19세기 후반 전남 지역의 천주교 동향과 위정척사운동의 양상, 그리고 척사윤음비의 의미 등을 탐색해 보았다. 장흥 척사윤음비는 1881년 5월에 반포된 「신사척사윤음」을 비석에 새겨 건립한 것으로,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장흥부사 이학래(李鶴來)였다. 그는 전주이씨 왕족의 후예로서 18세기 후반 공서파(攻西派) 인물인 이헌경(李獻慶)의 현손이었으며, 흥선대원군의 천거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선대부터 내려온 반서학 입장을 견지하고 조선 정부의 척사 척양의 방침에 동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학래가 장흥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는 전남 남해안 일대에 이양선이 출현하고, 이양선에 의해 세곡선이 약탈되는 등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19세기 후반까지 전남 남부 권역은 유학(儒學)의 영향력, 혈연 중심의 사회 구조, 군영(軍營)의 감시망,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천주교 전파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병인양요 당시 기정진(奇正鎭)을 중심으로 한 척양 척사 운동, 1881년 신사척사운동 당시에도 고정주(高定柱)를 소두로 한 위정척사의 상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척양 척사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결국 척사윤음비의 건립은 지역 수령이었던 이학래 개인의 가문 내력 및 관직 이력과 관련이 있으며, 건립 당시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감과 지역 내 척양 척사의 분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 [서식-2] 기타실적

No.	구분	주요내용	실적년월
5	K-MOOC 강좌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에서 진행한 강좌에서 “노사학과와 20세기 한국유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를 녹화하여 외부로 송출함	2024.11.

대표실적 설명

5. 이원석 K-MOOC 강좌, 「노사학과와 20세기 한국유학」

본 강연은 인문사회연구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근대호남유학 연구-노사학과를 중심으로”라는 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제작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소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4년 4월에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와 MOU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연구 및 교육 콘텐츠 교류의 일환으로 본 강연을 녹화하였다. 해당 강연은 2026년 K-MOOC을 통해 송출하였다.

본 강연은 20세기 한국 유학에서 노사학이 어떤 위상을 지녔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한말의 기독교가 유교에 제기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노사학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노사학이 20세기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 즉 구한말 한국 유학이 직면한 사상적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 과정을 조명하고, 노사학이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20세기의 사상적 지형 속에서 노사학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신청 연구소 정관 또는 운영규정

전남대학교철학연구교육센터규정

[시행 2001. 9. 1.]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770호, 2001. 9. 1., 제정.]

전남대학교

제1조(명칭) 이 센터는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동·서양 철학사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학문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여타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 철학적 토대의 제공을 모색하며, 이들 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나아가 다양한 수요자 층을 위한 철학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철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철학화를 실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올바른 규범과 미래의 철학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서철학의 전문적·체계적·통합적 연구
2. 동서철학의 고전 번역 및 주석 작업
3. 호남 유학 문헌 자료정리 및 번역 사업
4. 학술대회 개최 및 출판물 발간
5.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다양한 수요자 층을 위한 철학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7. 철학특강, 철학아카데미, 철학교실, 철학캠프 운영
8.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철학 협동강의 개설
9.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사업
10.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관한 사업

제4조(조직) ①센터에 소장과 기획부, 연구부, 프로그램개발부를 둔다.

②소장은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혹은 박사급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소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담한다.

1. 기획부 : 센터 사업의 기획·재정·홍보·대외협력 및 교류 업무 총괄
2. 연구부 :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고전번역 및 주석작업 수행,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출판 등 연구 업무 총괄
3. 교육프로그램개발부 : 철학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철학 강의 등 교육 업무 총괄
- ④연구부와 프로그램개발부 산하에 프로젝트에 따른 다양한 연구팀, 번역주석팀, 교육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센터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①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박사과정 수료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특별연구원은 센터의 박사후 연구원(Post-Doc.)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④협동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과 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 계획
2.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3. 프로그램의 선정 및 평가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
5. 센터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6. 기타 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한다.

제8조(강좌 개설) 센터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재정) 센터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0770호, 2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규정

[시행 2017.7.28.]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607호, 2017.7.28., 제정]

전남대학교, 062-530-5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인문학연구원은 미래 인문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인문학 학술 연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인문학이 가치를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 인문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 제 분야에 대한 자료 발굴과 정리 및 연구 활동
2. 인문학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확산하는 인문학강좌 등의 대중화사업
3. 인문학 제 분야 관련 대외프로젝트사업
4. 인문학 제 분야 관련 국제협력 및 산학협동 증진
5. 인문학 제 분야의 인력양성 교육
6.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초청강연회, 공개강연회 등의 개최
7. 정기간행물의 발간
8. 학술저역서의 출판
9. 연구 논문집 및 자료집의 간행
10. 기타 인문학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① 인문학연구원에는 연구기획부, 연구지원부, 인문교육부, 학술행사부, 발간사업부 및 행정실을 둔다.

1. 연구기획부는 학제간 연구기획, 국제교류 업무, 연구과제의 개발과 연구과제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지원부는 산하 연구소 지원 사업, 연구원 연구 지원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관리에 관한 사항

3. 인문교육부는 인문학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인문학강좌 운영 등 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4. 학술행사부는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초청강연회, 공개강연회, 집담회, 기타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 발간사업부는 정기간행물, 학술저역서, 인문총서, 연구총서, 자료총서 및 각종 발간 사업에 관한 사항

6. 행정실은 서무, 회계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인문학연구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연구소 및 센터를 두며, 연구소 및 센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인문학연구소

2. 한국어문학연구소

3. 영미문화연구소

4. 역사문화연구센터

5. 철학연구교육센터

제4조(구성) ① 인문학연구원에는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 각 부장 1인, 각 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본교 인문학분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인문학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본교 인문학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부장은 본교 인문학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임기 및 처우) ① 인문학연구원의 모든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 연구기획부장, 연구지원부장, 인문교육부장, 학술행사부장, 발간사업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문학연구원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인력

제6조(겸임연구원 등) ① 인문학연구원에는 역할과 필요에 따라 그에 합당한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연구인력은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학술연구교수와 학술연구원 등),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분한다. 위촉 또는 임용은 명기된 기간에만 효력을 갖는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인력을 일컫는 것으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선발절차를 밟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과제 수행(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교외인사 중에서 부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인문학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및 회의) ① 인문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 위원은 원장, 부원장, 인문대학장, 인문대부학장, 산하 연구소(센터)장, 각 부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문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9조(편집위원회) ① 인문학연구원이 간행하는 출판물(정기간행물 포함)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전문연구자 중에서 인문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인문학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인문학연구원에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학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문학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1조(재정) ① 인문학연구원의 재정은 교비, 각종 보조금, 수탁 연구비, 각종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의 세입 및 세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인문학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8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인문학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평가) 인문학연구원은 전남대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를 받으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붙임-4>

[표 1-1] 1831~1845년 출생 유학자군

인명	생몰년도	지역	학맥	저술
趙德浩	1834~1911	순천	노사	
許 燮	1834~1900	남원	노사	
鄭時林	1839~1912	보성	노사	『月波集』
白永直	1841~1912	장흥	화서	『六有齋遺稿』
沈晶澤	1841~1908	곡성		『邃菴遺稿』
吳繼洙	1843~1915	나주	노사	『難窩遺稿』
魏瓘植	1843~1910	장흥	노사	『春坡遺稿』
洪祐錫	1843~1908	화순	노사·화서	『愚齋遺稿』
具文謨	1844~1918	화순	노사·화서	『松澗遺稿』
安澤煥	1844~1917	화순	화서	『三希堂遺稿』
尹滋鉉	1844~1909	화순	화서	『訥窩遺稿』
鄭義林	1845~1910	화순	노사	『日新齋集』
安澤煥	1844~1917	화순	화서	『三希堂遺稿』

[표 1-2] 1846~1860년 출생 유학자군

인명	생몰년도	지역	학맥	저술
奇宇萬	1846~1916	장성	노사	『松沙集』
李敦植	1847~1920	화순	화서	『農隱遺稿』
高光洵	1848~1907	담양	화서	『鹿川遺稿』
魏啓洋	1848~1939	장흥	노사	『春軒集』
李泰魯	1848~1928	나주	노사	『又顧集』
奇參衍	1851~1908	장성	노사	
朴魯述	1851~1917	광주	노사	『石陰遺稿』
沈繼澤	1851~1930	곡성		『石田遺稿』
吳駿善	1851~1931	나주	노사·화서	『後石遺稿』
文達煥	1852~1938	화순	화서	『逖齋集』
梁相曄	1852~1903	화순	화서	『雲圃集』
李熙容	1853~1931	광주	노사	『雙石遺稿』
奇宰	1854~1921	장성	노사	『植齋集』
安國禎	1854~1898	화순		『松下集』
李炳壽	1855~1941	나주	노사	『兼山遺稿』
趙亨九	1855~1930	강진		『約軒遺稿』
高光善	1855~1934	광주	노사	『弦窩遺稿』
宋廷默	1855~1927	광주	노사	『後海遺稿』
梁在海	1855~1924	화순	노사·화서	『華隱遺稿』
魏啓玟	1855~1923	장흥	연재·화서	『復齋集』
鄭仁采	1855~1934	화순	연재	『志巖遺稿』
黃玆	1855~1910	광양/구례		『梅泉集』
宋宙勉	1856~1910	화순	화서	『圭沙遺稿』
李承鶴	1857~1928	담양	노사	『靑臯集』
趙章燮	1857~?	곡성	화서	『韋堂集』
奇宇承	1858~1907	장성	노사	『普山集』
朴奎鎭	1858~?	화순	화서	『畏堂遺稿』
林顯周	1858~1934	구례	화서	五鳳精舍
邊萬基	1858~1924	장성	화서	『鳳南日記』
安成煥	1858~1911	보성	연재	『蘇山遺稿』
趙鍾惠	1858~1927	순천	연재	『滄庵集』
具赫謨	1859~1895	화순	연재	『愼菴遺稿』
金永榮	1859~1945	담양	간재(?)	『棲巖日記』
梁在慶	1859~1918	화순	노사·화서	『希夷遺稿』
奇東準	1860~1918	광주	노사	『春潭集』
朴魯冕	1860~1913	광주	노사	『上古軒遺稿』

[표 2-1] 1861~1875년 출생 유학자군

인명	생몰년도	지역	학맥	저술
安秉宅	1861~1936	제주·광주	노사	『浮海文集』
高澆杓	1862~1947	영광		『月雲文集』
梁會洛	1862~1935	화순	노사	『東溪堂遺稿』
朴丞載	1863~1943	무안	화서	『晚軒遺稿』
安鍾鶴	1863~1923	보성	연재	『支峯集』
趙寅錫	1863~1931	곡성	노사	『石汀集』
김한익	1863~1944	장성	화서	
朴冀鉉	1864~?	강진	노사	『剛齋遺稿』
朴琳相	1864~1944	무안	화서	
金永根	1865~1934	강진	화서	『景晦集』
김한목	1865~1934	장성	노사·화서 교유	
李鍾宅	1865~1942	영광	노사	『六峯遺集』
金志學	1866~1925	함평	화서	『頑石遺稿』
鄭熙冕	1867~?	영광	노사	『菊史遺稿』
김기상	1867~1938	장성	신목재 문인	
文載熙	1868~1941	화순	화서	『茅巖集』
池應鉉	1868~1957	광주	노사	秉天祠
孔學源	1869~1939	장성	노사	『道峰集』
宋柱昇	1869~1947	고흥	연재	『思軒遺稿』
姜大一	1870~1950	순창	노사·간재	『翠庵遺稿』
魏啓龍	1870~1948	장흥	노사·면암·연재	『梧軒遺稿』
金永淳	1871~1946	고흥	노사	『止齋堂遺稿』
奉洛淳	1871~?	장성	노사	
裴演默	1871~1945	장흥	노사	『時習亭遺稿』
蔡冕默	1871~?	부안(전북)	노사	
黃炳中	1871~1935	광양	간재	『鼓巖集』
洪圭植	1871~?	나주(남평)	노사	
洪祐鏞	1872~1941	화순	노사·화서	『牛山遺稿』
宋柱憲	1872~1950	고흥	화서·간재	『三乎齋集』
宋鴻	1872~1949	화순	연재	『宋鴻先生遺稿』
安圭容	1873~1959	보성	노사·연재	『晦峯遺稿』
李光秀	1873~1953	담양	노사	
黃澈源	1873~1932	화순	노사	『重軒集』
白弘寅	1874~1952	보성	화서	『洗心堂文集』
安東植	1874~1937	나주	노사·화서	『松隱遺稿』
李孝錫	1874~1945	장흥	노사	『華山遺稿』
孔琪鎭	1875~?	순창	노사	
李承達	1875~?	영광	노사	

[표 2-2] 1876~1890년 출생 유학자군

인명	생몰년도	지역	학맥	저술
康基準	1876~1954	고창	노사	
高光烈	1876~1958	담양		『尼山遺稿』
康熙鎭	1878~1942	영광	노사	『止軒遺稿』
金洙赫	1878~1952	장흥	노사·화서	『省菴遺稿』
崔基亮	1878~1943	광주	노사	
廉錫珍	1879~1955	장흥	화서	『南谷遺稿』
鄭 琦	1879~1950	산청-구례	노사	『栗溪集』
吳用根	1880~?	장성	노사	
裴玄基	1881~1954	화순	노사	『仁山齋文集』
白亨璣	1881~?	장흥	노사	
安鍾基	1881~1949	광주	노사	
文 炯	1882~1936	화순	노사	『心圃文集』
金聲基	1884~1951	화순	연재	『希齋遺稿』
鄭大睥	1884~1958	곡성	화서	『石蓮遺稿』
梁會甲	1884~1961	화순	노사	『正齋集』
丁大睥	1884~1958	곡성	화서	『石蓮遺稿』
裴錫冕	1885~1978	화순	노사	『魯菴集』
尹璟赫	1885~?	나주(남평)	노사	
金澤炳	1887~1957	영광	노사	
朴魯烈	1887~1969	광주	노사	『易齋遺稿』
金駿植	1888~1969	장성	노사	『東谷集』
朴興圭	1889~?	장성	노사	
李演雨	1890~1939	화순	간재	『眞齋私稿』

[표 3] 1891 이후 출생 유학자군

인명	생몰년도	지역	학맥	저술
韓基高	1891~?	나주(남평)	노사	
朴錫元	1892~1968	나주	노사	『節堂遺稿』
奇老善	1895~1937	장성	노사	『道南集』
金載石	1895~1971	나주		『月潭遺稿』
李澤根	1895~?	영광	노사	
呂昌鉉	1897~1975	곡성	노사	『雲沙遺稿』
蔡奎泰	1900~?	부안(전북)	노사	
姜 璘	1901~1990	순창	노사	『菊露秋寫』
金文玉	1901~1960	합천-화순	노사	『曉堂集』
鄭喆煥	1901~1981	나주	한주	『東樵遺稿』 4권
金奎泰	1902~1966	구례	노사	『顧堂遺稿』 16권6책
羅甲柱	1902~?	나주	노사	
奇老章	1904~1970	장성	노사	『莊軒遺稿』
洪錫煥	1904~1980	나주	노사	『城南漫錄』
송효섭	1907~1973	고흥	간재	
朴炯鳳	1910~?	장성	노사	
邊時淵	1922~2006	장성	노사·간재·정재	
魏啓道	1926~1990	화순-광주	노사	『晚翠集』
李百純	1930~2012	보성-광주	노사·간재	『松潭先生文集』
尹丁鎬	1917~2002	나주-광주	노사	『重軒遺稿』
高在益	1912~1982	장성	노사	『省窩遺稿』

[표 4] 20세기 간행 전남·광주 서원지 16종

서원지	간행년도	서원	소재지
『무양서원지(武陽書院誌)』	1934	무양서원(武陽書院)	광주광역시
『미천서원지(眉泉書院誌)』	1939	미천서원(眉泉書院)	전남 나주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	1968	고산서원(高山書院)	전남 장성
『무장서원지(畝長書院誌)』	1969	무장서원(畝長書院)	전남 영광
『죽정서원지(竹亭書院誌)』	1971	죽정서원(竹亭書院)	전남 영암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	1975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남 장성
『설재서원지(雪齋書院誌)』	1975	설재서원(雪齋書院)	전남 나주
『영귀서원지(詠歸書院誌)』	1979	영귀서원(詠歸書院)	전남 곡성
『재동서원지(齋洞書院誌)』	1983	재동서원(齋洞書院)	전남 고흥
『경현서원지(景賢書院誌)』	1983	경현서원(景賢書院)	전남 나주
『옥계서원지(玉溪書院誌)』	1993	옥계서원(玉溪書院)	전남 순천
『녹동서원지(鹿洞書院誌)』	1993	녹동서원(鹿洞書院)	전남 영암
『남강서원지(南康書院誌)』	1994	남강서원(南康書院)	전남 강진
『죽수서원지(竹樹書院誌)』	1995	죽수서원(竹樹書院)	전남 화순
『월봉서원지(月峯書院誌)』	2011	월봉서원(月峯書院)	광주광역시
『군자서원지(君子書院誌)』	2013	군자서원(君子書院)	전남 강진

< 붙임-4 >

참 고 문 헌

- 기정진, 원문 교감본 『노사집』 vol.1~2, 경인문화사, 2018.
- 강정화, 「근대전환기 강우지역 학맥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남명학연구』 vol.82, 2024.
- 고영진, 「노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대동문화연구』 vol.39, 2001.
- 구사회, 「근대전환기 호남유학자 우고(又顧) 이태로(李泰魯)의 『우고선생문집』과 시세계」, 호남학 vol.59, 2016.
- 권경안, 「일제강점기 담양지역 鞠씨의 有志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0, 2007.
- 권수용, 「호남의 근대 누정 작가, 작품 연구 -기우만(奇宇萬), 오준선(吳駿先), 고광선(高光善)을 중심으로」, 『동방학』 vol.19, 2010.
- _____, 『스승 노사(蘆沙)를 위한 애도문(哀悼文)』, 한국학호남진흥원, 2024.
- 근대호남유학연구단, 『노사학파문인들의 삶과 사유』 1~5,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2025.
- _____, 『노사학과 문집해제』 1~2,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2022.
- _____, 『외필 논쟁 자료집』 1~2,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2022.
- _____, 『남량사의 논쟁 자료집』,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_____, 『노사학과강학·일기자료집』 1,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_____, 『근대호남유학의 흔적을 찾아서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고반, 2025.
- 기정진, 『답문류편』, 한국학호남진흥원, 2019.
- 김건우, 「호남권 문집의 특색과 권역별 협동번역사업의 성과」, 『고전번역연구』 vol.15, 2024.
-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vol.68, 2021.
- 김기린, 「일신재 정의림의 시세계 성향 고찰」, 『문화와 융합』 vol.43, 2021.
- _____, 「개화기 호남 유림의 여성 인식」, 『한국고전연구』 vol.30, 2014.
- 김낙진, 「奇正鎮과 田愚성리학적 쟁점과 鄭載圭의 성리설」, 『南冥學研究』 vol.29, 2010.
- 김대식, 「조선 후기 죽산안씨(竹山安氏) 문중(門中)의 강학(講學)과 향촌교화(鄉村敎化) 활동」, 『인문학연구』 vol.45, 2013.
- 김대현, 「호남문집 정리의 현황과 과제」, 『호남학』 vol.54, 2013.
- _____, 「『20세기 근대 호남 문집』의 조사와 정리에 대하여」, 『대동한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 2016.
- 김문택,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vol.11, 2007.
- 김미선, 「호남지역 일기자료 조사·정리의 사례와 그 활용 가치 -일기자료 조사·정리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영남학』 vol.72, 2020.
- _____, 「문집 부록附錄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 vol.29, 2016.
- 김봉곤, 「蘆沙學波의 形성과 活動」,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湖南地域의 奇正鎮 門人集團의 分析」, 『호남학』 vol.44, 2009.
- _____, 「호남지역의 파리장서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50, 2015.
- _____, 「愚山 李鉉五(1868~1923)의 蘆沙學脈 계승과 主理論의 전개」, 『동양한문학연구』 vol.52, 2019.
- 김선희 외, 『서학의 파장과 조선 유학의 대응』, 블루앤노트, 2024.
- 김성희,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의 시세계」, 『동방한문학』 vol.87, 2021.
- 김세미오, 「浮海 安秉宅과 제주 蘆沙學派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vol.89, 2021.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所載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vol.31, 2016.
- 노관범, 『근대 전환기 한국의 개화와 유교』, 블루앤노트, 2024.
- 류시현, 「일제강점기 윤운기의 민족의식과 교육 활동」, 『호남학』 vol.55, 2014.
- 문수현, 「鄭琦의 삶과 傳 문학」, 『고전과 해석』 vol.10, 2011.
- 박경환, 『한국 근대전환기의 사상 지형: 유학적 도덕중심주의의 분화』, 예문서원, 2024.
- 박명희, 안동교, 김석태 외, 『노사집』 vol.1~5, 경인문화사, 2015~2018.
- 박종훈, 「율계(栗溪) 정기(鄭琦)의 「영동기행(嶺東紀行)」 일고찰」, 『온지논총』 vol.83, 2025.
- 박학래, 『기정진 철학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 _____, 「朝鮮時代 湖南儒學의 전개 양상과 의의」, 『哲學研究』 vol.99, 2006.
- _____, 『(한말 성리학의 거유)기정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難窩 吳繼洙의 학문과 강학 활동」, 『범한철학』 vol.116, 2025.
- 박학래 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1, 흐름, 2016.
- _____, 『해체와 연속, 근현대 한국의 유학사상』, 블루앤노트, 2023.
- _____, 『도학 계열의 동향과 조선 성리학의 계승』, 블루앤노트, 2024.
- 박현옥, 「蘆沙奇正鎭詩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서종태, 「艮齋 田愚의 전라도 문인집단 형성 -『觀善錄』의 전라도 문인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vol.78, 2016.
- 서해숙, 「전남지역 종가(宗家) 가훈(家訓)의 경향과 가통적 인식 연구」, 『남도민속연구』 vol.49, 2024.
- 성주현, 「1920년대 유림계의 ‘내지시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83, 2015.
- 안진오, 『호남유학의 탐구』, 이회, 1996.
- 양세영,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호남학』 vol.70, 2021.
- 양조한, 「간재학과와 노사학과 사상 동이와 특징」, 『간재학논총』 vol.10, 2010.
- 오승주, 「서원의 공간적 특징과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방안 -광주광역시 소재 서원을 중심으로」, 『호남학』 vol.75, 2024.
- 원재연, 「근대 이행기 호남 유림의 時務論과 東學 인식-李沂(1848~1909)와 黃玪(1855~1910)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vol.74, 2015.
- 유지웅, 「한말 기호학파의 전개와 특징」, 『공자학』 vol.30, 2016.
-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07.
- _____, 「해방 이후 호남지역 서원·사우의 복설과 신설」, 『중앙사론』 vol.30, 2009.
- 이경동, 「조선시대 호남지역 향약 운영의 특성과 성격 -향교 및 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7, 2024.
- 이백순·최한선 역, 『국역 노사선생문집』, 무진, 2006.
- 이봉규, 『서양사상의 유입과 유학계의 대응』, 블루앤노트, 2024.
- 이상익, 『기호성리학논고』, 심산, 2005.
- 이영숙, 「日新齋 鄭義林 시에 나타난 韓末의 강회활동」, 『동양한문학연구』 vol.69, 2024.
- 이예원, 「20세기 전반기 전남지역 풍류의 전개양상과 경향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호남학』 vol.71, 2022.
- 장복동, 「湖南儒學의 한국적 지평」, 『호남문화연구』 vol.57, 2015.
- 장숙필, 「간재(艮齋)의 발신간찰(發信簡札)을 통해 본 간재(艮齋)와 문인(門人)들의 사상문답(思想問答) 유형 분석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과 공부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자학』 vol.31, 2016.
- 정순우,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vol.12, 2021.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최석기 외, 『19세기 경상수도 학자들』 상·중·하, 보고사, 2012.

최대우 외, 『19세기 호남유학의 재구성 : 노사학파의 형성과 발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심산, 2006.

최태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통한 민족정체성 함양교육 : 전남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에듀테인먼트연구』 vol.6, 2024.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선후기 심설논쟁) 노사학파 : 표점·해제·선역』, 학고방, 2024.

한길로, 「근대 전환기 지방 유림의 한시에 나타난 이산 체험과 가족애의 일면-고암(鼓巖) 황병중(黃炳中)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vol.81, 2024.

함영대, 「栗溪 鄭琦의 학술정신 -시대인식과 학술저작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vol.72, 2021.

허원영, 「일제강점기 영광 연안김씨가의 농업경영과 자본전환의 모색」, 『역사문화연구』 vol.60, 2016.

홍성덕, 『호남삼재 문인록』,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2015.

홍영기, 「19세기 중엽 이후 이최선가의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vol.39, 2001.

_____, 『(노사학파가 기록한) 호남의병열전』, 노사학연구원 상상창작소봄, 2019.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_____,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1·2』, 서광사, 1998.

_____, 『율곡 이이』, 살림, 2007.

_____, 『기호유학연구』, 서광사, 2009.

황준연, 「한말 호남 유학계의 성리사상과 현실대응」, 『한국유학사상대계』(III, 철학사상편 하), 한국국학진흥원, 2005.